

定慧社

불기 2549년 여름 | 제31호



교수논단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정혜탐방 동화사 비로암 조실 무영범룡無影梵龍 큰스님
학인기고 『書狀』을 통해서 본 看話禪法
『大乘起信論』의 五門修行에 대하여
기본적인 口訣의 意味와 用度
비랑을 메고 명주재장

송광사 전통강원

수행자의 본분

승가에서 출가자라 함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수행공동체의 일원을 말한다. 전통적, 또는 사전적 의미로써 이렇게 인식되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승가의 출가자상相은 현재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하나의 종교가 한 시대의 온전한 이데올로기가 역할을 하던 과거와 달리 종교가 다원화되어 개개인의 성향이나 기호에 의해 선택되는 경향이 강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타종교와 경쟁 관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포교의 중요성을 불교계에 각성시키면서 대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역할의 출가 수행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방면에서 여러 유형의 방편을 동원한 출가 수행자가 포교 일선에 등장하고 있다.

깊은 산중에서 세속과의 인연을 끊은 채 오직 수행에만 전념한다는 전통적인 출가 수행자의상相은 이제 세속의 다양한 방면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출가 수행자들과 양립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런 모습에서 혹시 출가 수행자의 본분이 훼손되어 가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자문해 본다. 물론 이런 모습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한국의 승가 전체를 이런 모습으로 보아야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포교함에 있어 실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며 또 눈에 드러나지 않게 출가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용맹정진에 불타는 눈 푸른 수행자들 또한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출가자는 성직자聖職者가 아니라 수행자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업으로 삼는 이를 말함인데 다시 말해서 종교를 방편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이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가의 출가자는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이다. 종교를 생업으로 삼아 중생사의 번뇌와 망상으로 근심 걱정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신 스스로의 삶을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속세의 악업을 바른 행으로 녹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행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가자의 모든 행위를 규정짓는 최상위의 규범은 수행이며 수행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본분사本分事이다.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조력하는 방편도 오직 수행이라는 목적의 근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속인들에게 전하여 깨닫게 함이 분명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주主와 객客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어찌하여 도둑들이 내 옷을 꾸며 입고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통탄하셨다. 또 옛말에 이르기를 “삼악도의 고통이 고생이 아니라, 가사를 입었다가 사람 몸 잃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하였으며,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삭이기 어렵다”라고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출가자에게 우선시되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밝혀 생사윤회를 끊는 일이라는 의미로서 뼈속 깊이 절절하게 사무치는 선인들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과거와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출가자로서 본분本分인 수행하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포교 일선에 있더라도 출가자의 본분인 수행함을 한시라도 망각하지 않는 참된 출가 수행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定慧社

불기 2549년 여름호 | 통권 제31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을유년 하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 6 교수논단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 원경
- 13 기획연재
송광사 산내암지와 국사탑 - 광원암지
- 16 지대방 이야기
득비 | 본행
새내기 치문반 | 혜천
정혜사의 하루 | 시관
송광사라는 곳에서 | 상국
수행자란 | 정웅
- 20 정혜탐방
동화사 비로암 조실 무영범룡無影梵龍 큰스님
- 24 목우만평
짚신즉불 | 서림
- 26 목우단상
○○스님께 | 덕현
밭우공양 | 능엄
감로 | 불각
- 31 경전 한 구절
어리석은 자
- 32 바람소리 한자락
송광사 치문반 | 지성
시주은 | 혜산
상생죽필문 | 무영
- 37 시가 있는 풍경
출가 | 신해
방하착 | 도해
도반 | 유신
- 40 학인기고
『書狀』을 통해서 본 看話禪法 | 혜도
『大乘起信論』의 五門修行에 대하여 | 혜각
기본적인 口訣의 意味와 用度 | 능인
- 48 바랑을 메고
명주재장 | 무량
- 52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 55 소년소녀가장 후원안내
-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올리는
빈자일등(貧者一燈) 처럼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탐·진·치 삼독의 무명업장 소멸하고
한 등 한 등 마다 담긴 저마다의
발원이 우리 모두 부처님과 같이...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무량(입승)
편집장 | 혜명
편집 | 혜도·상국
사진 | 혜명·혜도

발행일 | 불기 2549년(서기 2005) 8월 15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가획 062) 225-8825



송광사 비전

萬像之中獨露身
唯人自肯乃方親
昔時謬向途中覓
今日看來火裏永

글 | 장경혜릉長慶慧稜(854~932)·사진 | 편집실



우화각 용머리 엮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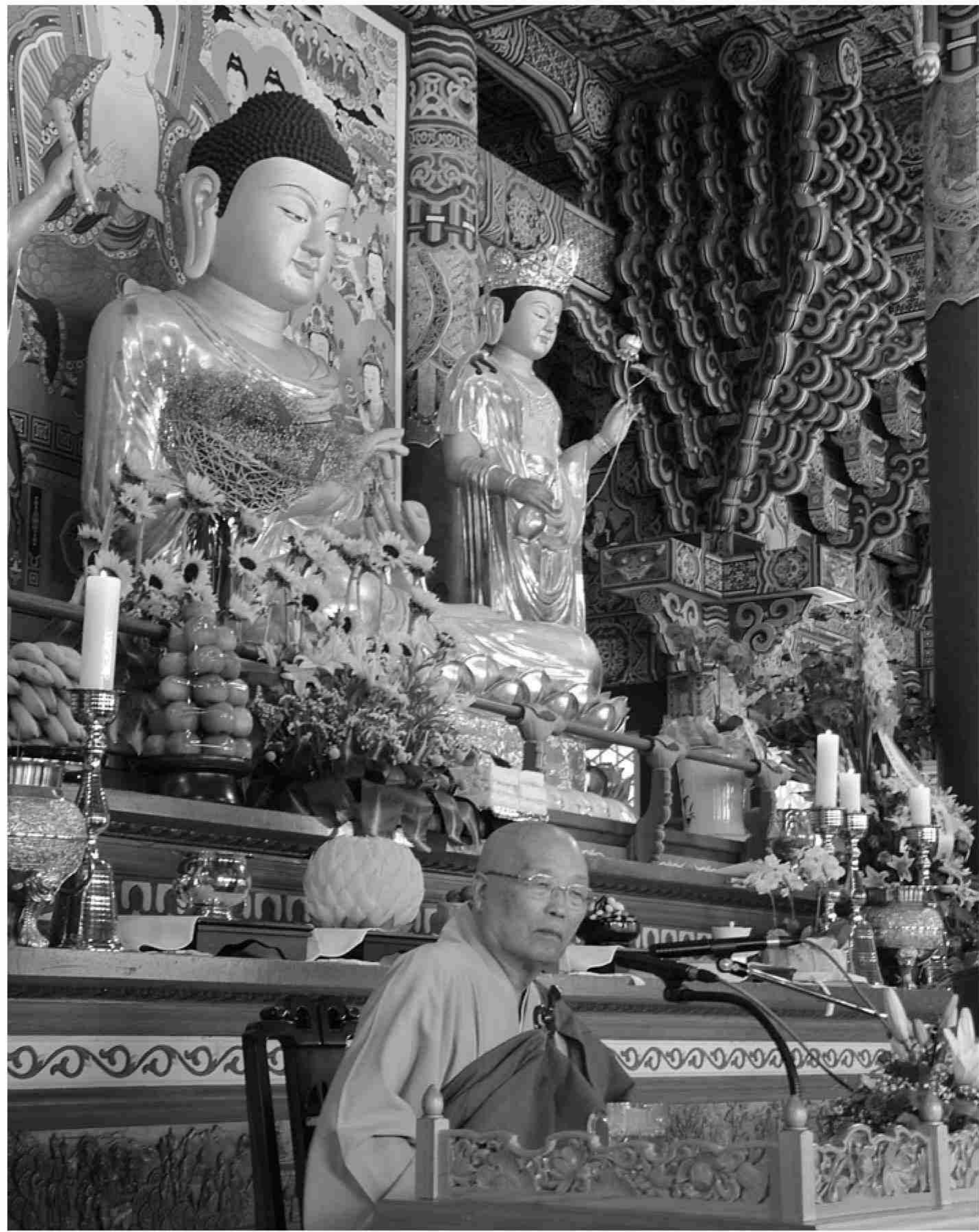
삼라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여
그대 스스로 인정해야만 비로소 친숙해지네.
옛적에는 길 위에서 찾아 헤매었으나
오늘은 불 속에서 얼음을 보네.

장경혜릉長慶慧稜(854~932) 당말唐末 5대五代 스님. 설봉雪峰문화. 장경은 주석 사명. 속성은 손孫. 절강성 항주 염관鹽官 출신. 13세 때 강소성 소주 통현사通玄寺에서 출가. 영운지근靈雲志勤·설봉의존雪峰義存·현사사비玄沙師備 등을 참하고, 후에 설봉의 법을 이음. 천우天祐 3년(906) 복건성 천주자사泉州刺史인 왕정빈王廷彬의 청에 따라 초경원招慶院에 머물고, 그 후에 복건성 복주 장경원長慶院에 머무. 초각超覺대사라는 호를 받음. 당唐 장흥長興 3년 5월 17일 입적. 세수 79, 법랍 60.

방장스님 범어

을유년乙酉年 하안거 결제 범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출격대장부여, 처음 뜻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일등 출가자들이여!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다들 가족을 버리고 생사사대라는 크나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출격대장부 아닙니까.
옛사람古人이 말씀하셨지요.
“주인공이여,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길을 찾았는데 그대는 왜 고통의 바다 속에서 한없이 떠도는가.”

여러분들은 진즉에 부처님 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필경에는 모든 분별시비에서 벗어난 해탈을 이루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거의 결제니 해제니 따질 것 없어요. 출가할 때 다짐했던 처음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처음 뜻이 얼마나 소중한니까.
처음 뜻을 시시각각 잃지 않고 맨 마지막 요달할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부처님 은혜를 충분히 갚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경전 조사어록을 많이 봤다고 해서 다된 것 아닙니다.
내가 물을 마셔야 물맛을 아는 법입니다. 물도 마셔보지 않고 물맛을 운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이는 없겠지요.

올 여름도 어렵히 덥겠다고 합니다. 더위도 도반들과 같이 덥다고 생각하면 더위가 한결 가벼울 거예요. 지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그 득력 그대로 임하면 더위는 온 데 간 데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말 못할 마장魔障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라고 해서 무슨 큰 장애만 장애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잘 극복해야지요.

송광사 국사전에 열여섯 번째로 앉아계시는 고봉스님께서 칠불암에서 공부하실 때 날마다 바위덩이를 어깨에 메고 육조 정상탑에 내려와 참배하고 다시 바위덩이를 메고 올라가는 독한 정진을 하셨답니다.
하루는 참배를 마치고 바위덩이를 메고 올라오다가 그간의 피로가 쌓여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선채로 잠깐 졸았던 모양이에요. 퍼뜩 깨어보니 그렇게 무겁던 바위가 가벼워져 있는 거라. 돌아다보니, 산채만한 지리산 대호가 바위를 떠받들어주고 있어요. 고봉스님은 호랑이에게 “이놈, 너 때문에 수마에 빠지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정진력에 반해 바윗돌을 받쳐주는 호랑이를 되레 꾸짖을 수 있는 돈독한 마음으로 올 여름 한번 힘내어 공부를 지어봅시다.

하좌下座. **定慧社**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講師

ekayanawk@hanmail.net

- 프롤로그 : 혼돈에서 질서로
- 제 1화두 :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 제 2화두 :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 제 3화두 : 성불의 현대적 의미
- 제 4화두 :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 제 5화두 : 수행의 이론과 실천
- 에필로그 : 행복과 정토사회 구현



道不遠人이나 人遠道하고 山非離俗이나 俗離山이라.
 도[진리]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지만 사람이 도를 멀리하고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았으나 속세가 산을 떠난다.

출가出家란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까. 간혹 현실적인 삶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방편으로 출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절에 버려 억지로 출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 도피성 출가라고 해도 이곳에서 재발심하지 않으면 출가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일단 출가하여 환경이 바뀌면 과거에 고민스러웠던 세속의 일들이 일시적으로 잠재하겠지만 출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업業이 일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출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문제해결 그 자체는 아니다. 출가 수행자의 삶은 여전히 생노병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온다. 오히려 세속에서는 살기에 바빠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출가하면 더욱 생사에 대한 문제가 절실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재발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이 있는 산중도 여전히 사회의 부분으로써 존재하는 한 승가 구성원간에 발생하는 문제나, 의식주에 대한 문제와 존재의 구성요인인 5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인 고통은 계속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또한 출가에서 시작된다.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미 뿌려 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나니
 인연이 무루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라.

『증일아함경』 <등견품>

싯달타 태자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正覺을 성취하시고 세존世尊이 되시었다. 그런데 석존인 여래如來를 지칭하는 열 가지의 명칭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래10호이다. 바로 여래를 지칭하는 열 가지 호칭 가운데 세간해世間解가 있다. 세간해란 범어梵語 lokavid의 번역인데 지세간知世間이라고도 한다. 즉 3중세간의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일들을 모두 다 안다는 의미이다.

분명히 석존께서 성도하시기 전 싯달타 태자는 생노병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태자의 지위와 세속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출가한다. 한 나라의 태자로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영락을 누렸을 것임에도 태자는 왜 세속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경전經典에 따르면 태자는 출가 전 정말 풍족한 세속의 삶을 살았었다고 석존 스스로 고백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생노병사라고 하는 현상을 접하는 순간 “청춘에 대한 교만은 산산이 토막나고 생수에 대한 교만은 먼지처럼 부서졌다”고 술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가는 누구나 처음에는 개인의 고민과 갈등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에는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慈悲로 회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러 세속의 삶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을 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不戀世俗曰出家] 그러나 깨달음의 최종 귀착처는 삼계三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과거의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그러하셨

고 현재와 미래의 불조佛祖가 그러하며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출가인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누군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목표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지만 자신의 번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타인의 번뇌를 구제하겠는가 라고. 이러한 종류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바로 앞 호 -성불의 현대적 의미- 에서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부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대승의 모든 보살이 총체적으로 발發하는 4홍서원을 보면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을 먼저 염念하고 “自性衆生誓願度 自性煩惱誓願斷 自性法門誓願學 自性佛道誓願成”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현실속의> 중생을 구제하는 그 과정이 자성自性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요, 중생의 번뇌를 끊어주는 과정이 자성의 번뇌를 끊는 것이며…….

이렇듯 다시 말하면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利他)이 바로 자신의 깨달음(菩提)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자신만 깨달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결코 완전한 보리菩提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운 후 대승의 바른 수행을 실천해야 해탈解

脫, 열반涅槃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통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많은 분야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생명경시문제, 환경오염문제, 교육의 문제 등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겠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명경시라고 본다.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도처에서 발견된다.

90년대 말 문명의 이기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성문화도 개방적이 되면서 낙태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야기된다. 낙태문제를 통해 비로소 생명경시에 대한 인간의 자각自覺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지만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수습하기도 전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은 뇌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계에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회생回生の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리하여 뇌사자의 경우 장기기증문제와 환자의 인격과 결부하여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라에 따라 안락사를 인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난해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복제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에 따른 문제가 다시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우려되는 것은 복제문제가 생명공학에 대한 의학적인 차원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사는 산업사회 전반에서 그렇듯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특정 종교에서는 유독 생명 문제에 대해 그것을 신神의 영역으로 간주해 버리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또한 보편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간들이 지혜롭게 풀어가야만 할 것이다. 단지 신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생명현상 본질에 대한 추구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 이 문제의 주사위는 신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주어져 있다. 정말 생명에 대한 문제는 오직 신의 영역이라면서 이 지상에서 인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동물실험이나 동물에 대한 무자비한 살생, 학대에 대해서 그들은 왜 침묵하는가. 더 나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의 종교 전쟁역사-십자군전쟁 이후의 이라크전쟁까지-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이 3계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귀한 존재일까. 동물에서 더 나아가 식물이나 광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생명은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으로 상대적으로 나눌 수 없다. 그저 하나인 생명체라는 본질로 들어가 생명경시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에서는 항상 분별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악이 동시에 발생되게 된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각각 다른 가치 기준으로 생명현상에 대해 다른 견해와 입장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본질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연약한 것이거나 강한 것이거나, 짧거나 길거나, 큰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장차 태어나려는 것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여! 다 행복하여라. 어떤 경우라도 남을 속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원한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남을 해치지 말라. 어미가 위협을 무릅쓰고 자식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닦으라. 위이거나 아래이거나 모든 생명에게 방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적의를 품지 말고 선행을 닦으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는 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행을 닦기에 최선을 다하라.

〈Mettasutta〉중에서

다음은 오염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일 것이

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정함과 더러움의 출발을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면 그가 사는 환경인 국토가 맑고 청정하며[心淸淨國土淸淨] 그 마음이 욕망으로 오염되어 더럽혀져 있으면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주변 환경(依報)은 한없이 더럽게 된다. 그 마음이 돼지 정도의 수준이라면 돼지우리처럼 하고도 좋아라하며 살아갈 것이다.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도 온갖 종류의 오염문제이다. 이러한 오염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로 형성된 산업사회의 필연적인 업보인지도 모른다. 산업사회는 기본적 원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도구화한다. 심지어 인간마저도 도구로 사용한다. 하물며 자연과 환경의 오염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가리어 버린다. 오염의 뿌리에는 바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자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오염의 주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다. 그런데 그 오염으로 인하여 전 우주의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여러 중생들이 오염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며 심지어 동, 식물 가운데 어떤 종은 멸종되었고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이 오염을 넘어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마음과 국토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와도 같아서

현재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몸과 국토가 심각한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부처님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니, 여러 중생들이와 같아서 번뇌의 진흙탕 속에 있으나, 모두 여래의 성품 간직하고 있네.

『여래장경』중에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노정된 여러 문제들은 교육을 통하여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 가족의 붕괴이다. 사회는 이미 혈연중심의 가족 개념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족의 붕괴는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의 붕괴 내지는 부재로 이어져 인성교육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유교의 이념 하에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하에서의 가정교육은 인성교육의 좋은 도장이었다.

오늘날 가부장적인 권위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평등성

같은 성공을 동경하게 되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부재 내지는 실패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생명을 경시하여 살인과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사회가 부산물로 생산해낸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모든 존재-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가 공존하는 길은 불가능하다.

재물은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눔에 의해서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소유는 욕망이라는 찌꺼기를 더욱 살찌울 뿐이다. 소유욕은 자신의 영혼마저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무소유를 실천한다. 소유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든 이기적 욕망과 욕망으로 축적된 재물을 버리고 버릴 때 걸림 없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제도권 교육인 학교교육은 개인이 현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을 돌이켜 보면 개인의 소질을 개발시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잘 따라주는 시민으로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교육이 도구화되고 있다. 현재 학교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인을 만드는데도 버거워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에 기초한 바람직한 가정교육이 새롭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은 이미 인성교육의 장이 아니라 하숙과 같은 장소로 전락되어 버렸다.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부부가 밤늦도록 일터에서 맞벌이로 살아 가다보니 자녀교육은 개인교사나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인간성이 훌륭한 개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소유한 영악한 인간을 원하고 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물질적인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현상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의식의 분별에 따라 인간의 이기심이 앞서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존재가 만족하고 행복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인 교육마저도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를 야기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산업사회가 이룩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류는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삶의 질을 재물의 양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물질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욕망은 더 많아져 자기만 더 많은 재화를 가지려고 골몰한다. 재화가 많이 창출되면 될 수록 그에 따른 심

각한 오염의 문제가 그림자로 드리운다. 결국 인간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기 마련이다. 산업쓰레기조차 수출하는 것이 선진 산업국의 기업윤리이다. 그것도 그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국가에다 말이다. 결국 돈이면 그만이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맞아떨어진 불행이다.

재물은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눔에 의해서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소유는 욕망이라는 찌꺼기를 더욱 살찌울 뿐이다. 소유욕은 자신의 영혼마저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무소유를 실천한다. 소유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든 이기적 욕망과 욕망으로 축적된 재물을 버리고 버릴 때 걸림 없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특히 소유개념이 강하다.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향이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재화의 양으로 보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상대적 빈곤감으로 불행을 느낀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많은 재화를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이것은 인간

의 욕망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위해 필요 이상의 재물을 만들어내느라 얼마나 많은 오염이 산출되고 있는가. 따라서 오염을 줄이는 길은 인간의 욕망을 줄이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근대, 현대사회가 추구해 온 물질문명 위주의 발전은 인간성의 차원에서 인류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엄청난 재화의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드디어 그 자본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유럽의 열강들은 식민지 경영에 뛰어들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식민통치국가에서 자연자원을 무한정 강탈하였다. 그것에 더하여 그 국가의 오랜 보물들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산업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기술이 발전되는 동기가 되었지만 후기 산업사회의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사악한 윤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

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력착취, 환경오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 실업문제 등은 이미 자정능력을 벗어난 지 오래다. 기업주는 오직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물질 위주의 발전은 국가 간, 개인 간에 더욱 빈부의 격차를 크게 벌어지게 하였다. 한정된 재화를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는가의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극빈자로 전락해 버렸다. 정부도 국가간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성장위주의 정책을 쓰다보니 소외된 국민들을 모두 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국가에서는 나누는 문화가 조성되어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못사는 나라는 여전히 사회 전체가 기아와 질병, 내전, 자연재해에 허덕이고 있다.

20세기 말 21세기 벽두에서부터 인류는 서서히 물질위주의 경제발전이 낳은 폐해들에 대해 심각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산업사회가 창출한 부정적인 잉여생산물들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구촌 전체의 공멸로 이어

대승불교의 시작은 근원적인 생명체가 본래 하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에서 시작된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자비 실천은 우선 철저한 공중에 대한 체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생명에 대한 동질성의 자각이 없다면 자비행은 아예 불가능하다.

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생명'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하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반대로 성현들의 인간에 대한 자비심은 무한하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큰 욕심은 한량이 없다.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욕망이라는 독이 나오기도 하고 자비라고 하는 약이 나오기도 한다. 현대 산업사회가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가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치중하다 보니 자신과 타인에게, 국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왔다. 이기적인 욕망은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결코 만족이란 없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우며 살아간다. 그리하여 인간의 영혼도 병들어 가고 있고 육신의 질병,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국토도 신음을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서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생활에서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이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집착한다. 행복은 만족하는데서 온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

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고민이 생기고 버리면 버릴수록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진정 마음으로 느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태어난 존재는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본래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그저 하나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분별의 차원에서는 이 5온으로 구성된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좀처럼 본래 하나인 생명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결국 불교의 근본 교의에서 보면 남을 살리는 길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 라는 말한다. 바로 불교의 시작은 근원적인 생명체가 본래 하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에서 시작된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자비 실천은 우선 철저한 공공에 대한 체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생명에 대한 동질성의 자각이 없다면 자비행은 아예 불가능하다. 천지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등 차별이 없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자각이 있다면 일체 유정·무정들에게 무한한 자비행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화경』에서 석존은 “일체 모두는 나의 자식이다”라고 선포하였다. 그 자식들이 삼계의 불난 집에

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 그들은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는 예쁘니까 구해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구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 강대국일수록 경찰국가를 자칭하면서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고 말은 곧장 잘하지만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를 팔아먹고 있다. 그들은 직접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전으로 양분된 양 진영에 무기를 수출하여 자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한다.

전쟁이야말로 인간의 무지와 욕망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인간에게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가져다준다. 세계 1차, 2차 대전도 선진국의 이기적인 욕망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들에게 보편적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그러한 엄청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만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근대, 현대문명은 물질을 본위로 한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파괴된 인간성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철저히 자각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인류문명이 안고 있는 생명경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석존께서 인류에게 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버림의 미학이다. 인

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누렸던 그 호사도 버리고 출가한 싯달타 태자는 인간의 욕망이 완전한 행복에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인간의 욕망은 더 뜨거워져 번뇌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다. 인간의 욕망의 찌꺼기를 다 소멸하게 되면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재물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버림으로서 우리는 많은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버렸다는 생각마저 버렸을 때 그 순간 무無의 공허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한량없는 자비가 일어나게 된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연대비無緣大悲가 가능한 것이다.

대자비의 실천은 우선 공성空性에 대한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절대 평등한 성품으로서의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존재의 평등성에 기초하지 않는 한 현대 사회가 당면한 많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없다.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 사는 현상사회 속에서는 많은 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공성에 바탕을 둔 인간의 절대 평등성이다.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나눔의 과정일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의 총량을 모든 존재의 숫자로 나눈다면 아마도 재화가 남아돌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려울 때 일수록 나눔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따라서 비록 재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나누게 되면 모든 존재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의 욕망 값을 줄이면 그만큼 행복의 값은 늘어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본질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 문제들은 현상세계의 분별적 시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공존을 위한 제일 법칙은 이기적인 욕망의 소멸이다. 불교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말이나 논리로 상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문제 해소를 위한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 불교는 2000년 이전부터 모든 존재의 절대적인 생명력에 기초하여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조차 자신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이 모든 법계는 본래 근원적으로 하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타利他니 자비慈悲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방편상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하나인 생명력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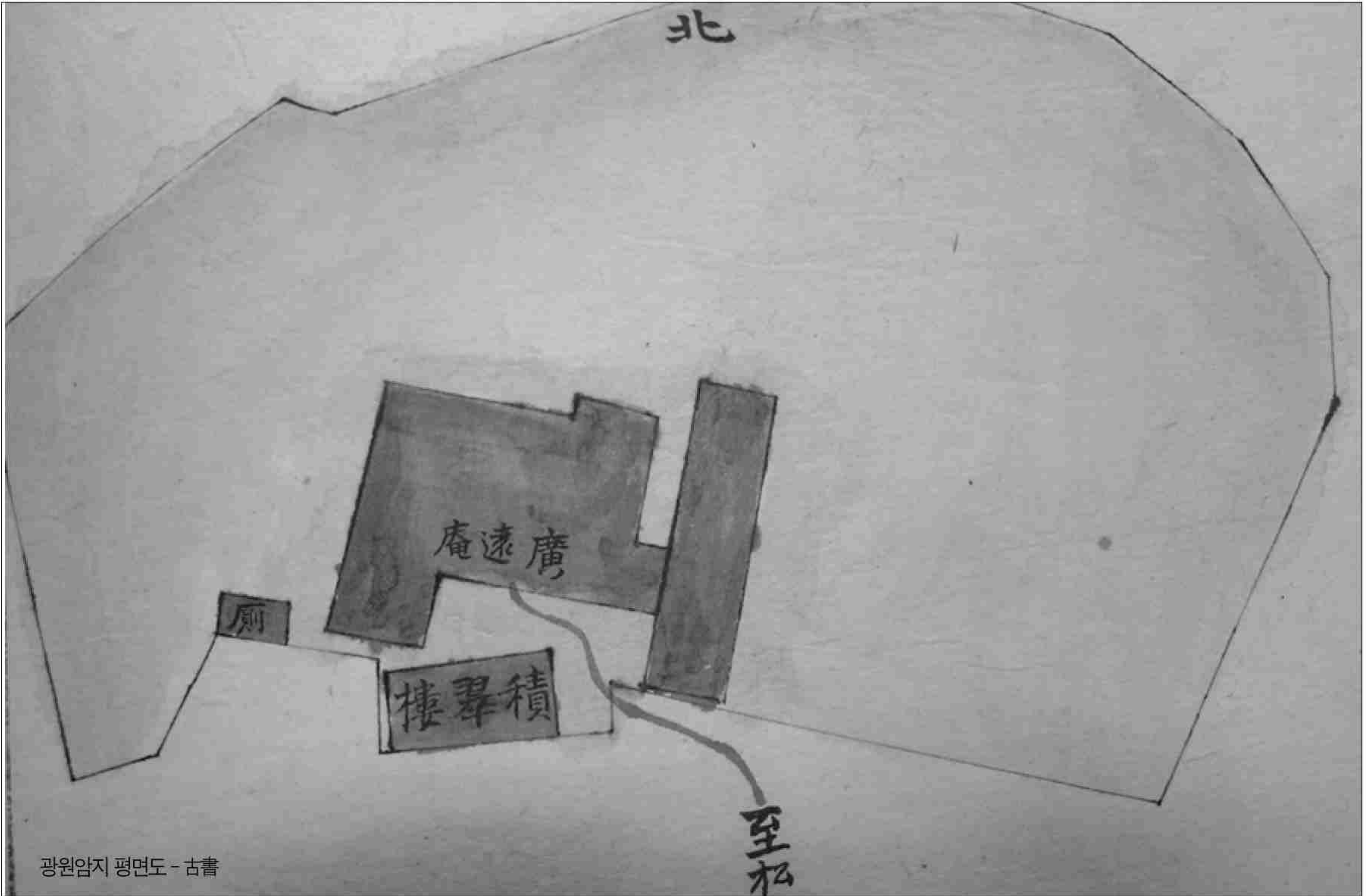
는 사실을 깨달아 근원적인 자비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이야말로 모두 행복한 극락이 아니라. **〔定慧社〕**

〈다음호에 계속〉



송광사 산내암지山內庵址와 국사탑國師塔

3. 광원암지廣遠庵址



백제 무녕왕 14년(서기 514년)에 가규可規스님이 처음 초창初創하였다고 한다. 오랜 역사만큼 많은 스님들이 광원암을 거쳐 가면서 수차례의 중창, 중건, 중수 불사로 근대의 1897년에는 금명보정스님께서 이곳에 강원을 열어 50여 명의 학인이 수행을 했으며 그 뒤에 1935년에 염불당念佛堂을 신설하여 대중이 모여 정업淨業을 닦았다고 한다. 본사인 송광사의 규모를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의 암자로 거듭 나기도 했다. 여러 번의 전란을 거치면서 화재로 소실되거나 송광사 불사를 위해 훼손되는 과정에서 폐사지로 전락했던 것을 1992년 전임 송광사 주지였던 현봉玄鋒스님의 원력으로 복원·중창하여 본채와 원조당圓照堂 그리고 해우소를 갖추었다.

광원암이라고 불리게 된 연유는 1226년에 당시 송광사 수선사에서 불법을 펴고 계시던 진각국사스님이 이곳에서 고금의 선적禪籍 중 최고로 평가받는 《선문염송집禪門念誦集》 30권을 저술하시고 제방에 광원유포廣遠流布 하였다 하여 광원암이라 불리어졌다고 한다.

스님의 휘는 혜심慧心이고 자는 영을永乙이며 호는 무의자無依子, 속성은 최씨崔氏로 지금의 전남 화순군 화순읍내의 한천(일명 거천車泉)부근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속명은 식寔이고 아버지는 완琬이고 향공진사鄉貢進士이며 어머니는 배씨裴氏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출가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모친의 반대로 유학儒學에 힘써 출사하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신종神宗 4년(1201) 24세에 사마시司馬試



광원암
삼세후불탱화
(1823년)



광원암
지장탱화
(1879년)



광원암 전경



진각국사 원조탑

를 마치고 곧 태학관太學館에 들어갔는데 이듬해에 모친이 사망한 후 재를 지내 드리기 위해 조계산 길상사로 보조국사를 찾아뵙고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바라던 출가에 대해 국사에게 아뢰었더니 일언지하에 승락하고 보조국사 문하에서 수행한다. 1210년 보조국사의 입적 후 수선사를 계승하는 진각국사는 1214년에 고려 고종의 즉위 후 대선사가 되었으며 그 후 각처의 사찰을 주유하면서 선법을 전하다가 1233년 겨울 본사에서 병이나 제자 마곡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부좌한 채 월등사에서 입적한다. 주상은 이 소식에 접하자 진도震悼하고는 시호를 진각국사眞覺國師라 내리고 탑액은 원조지탑圓照之搭이라 하사하였다.

진각국사는 왕실과 필연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평생 도성都城을 멀리한 채 선가禪家를 다지는데 주력하고 세속적 부귀영화를 탐닉하던 일단의 스님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으며, 주술적인 타력에 의존하던 당시 불교의 폐습을 타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한국불교에 있어서 선가禪家의 확립과 선시禪詩의 보고라 할《선문염송禪門念誦》을 엮었으며, 국문학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선시인이라는 점에서 그 위치가 확고하다. 고금의 선서禪書, 공안 등을 제가의 어록등과 함께 총망라한《선문염송집禪門念誦集》은 총 1125칙의 화보를 연대별로 분류,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의 어록과 관련된 찬, 송, 시 등이 당시의 선시 발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불교 시사적 의의가 큰 가치를 지닌 문헌이다. 이외에 저술로는《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字無佛性話揀病論》,《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금강경찬金剛經贊》,《선문심요禪門綱要》 등이 있다. **定慧社**

광원암지 廣遠庵址 연혁

眞覺國師 慧謚 圓照塔(第2世)

○ 소재 : N 35° 00' 21", E 127° 16' 32", A 280m. 좌향 195° (南)

○ 연혁 :

- 514(백제 武寧王 14년) 6. 초창(화사 可規), 상량문 기.
- 진각국사眞覺國師[1210 ~ 34] 주석. 禪門拈頌集 30卷(1226) 등.
- 1288. 원감국사집(恭和先國師 圓照庵 開池種蓮之作) (P.151)
- 1309(고려 충선왕 원년) 4. 중건.
- 1578(선조 11년) 3. 중건.
- 1710(숙종 36년) 3. 積翠樓 창건.
- 1712(숙종 38년) 봄. 중수(화주 致淳, 도감 智益), 단청(화주 會觀·望惠)
- 1713(숙종 39년). 누각 중수 (화주 淨悅·時習)
- 1771(영조 47년) 4. 공루 중건 (도감 出澄, 별좌 致初)
- 1776(영조 52년) 7. 18. 臥月教萍(1750.4.15 ~ 1822.2.15 : 사고 P.560에는 1760 ~ 1832로 오기).
 묵암의 首弟 鳳巖樂賢 (? ~ 1794.3.3)으로부터 法印 받음.
- 1823(순조 23년) 2. 중수개금 후불탱화(도광3) <No.41> 向右부분만 남음. 증사 海鵬天遊(호남 7巨鵬 중 1人),
 화주 麗宗, 금어 度鑑, 편수 勉淳, 天如, 祐口, 有定.
- 1848(현종 14년). 優曇洪基(1822.3.3 ~ 81.9.8) 개강(蓮月の 法印 받음)
- 1850년대(철종). 枕淵章宣(1824.1.5 ~ 1907.5.8) 강석.
- 1878(고종 15년) 가을. 겨울. 금명보정(1861 ~ 1930). 景鵬에게 起信論 배움.
- 1879(고종 16년) 1. 25. 지장탱화(광서5) <No.19> (현재 박물관), 증명 茵明太先, 毘首 雲坡就善, 妙英, 斗三,
 편수 天禧, 琪演, 一俊, 玲受.
- 1870년대말(고종) 이후. 鏡海官一(1843.11.12 ~ 1928.2.3) 주석.
- 1881(고종 18년) 3. 圓海鳳玉(文周) (1850.3.15 ~ 88.2.22) 개강.
- 1881(고종 18년). 布雨幸性(1850.12.8 ~ 84.2.7) 보조암에서 음.
- 1882(고종 19년). 圓海鳳玉(文周), 천자암으로 이석.
- 1883(고종 20년) 봄. 금명보정. 圓海로부터 十地 배움.
- 1883(고종 20년). 華性湊炳(1854.8.23 ~ 1927.4.8. 酉) 개강(漢雲 법인)
- 1884(고종21년). 금명보정. 圓海로부터 法華經 배움.
- 1884(고종 21년) 12. 7. 布雨幸性 입적.
- 1888(고종 25년) 봄. 華性湊炳, 보조암으로 이석.
- 1890(고종 27년) 봄. 混溟誠昊(1858.9.17 ~ ?) 건당(枕松)
- 1890(고종 27년). 翠巖景恩(1865.3.16 ~ ?) 개강(禪月 법인) 및 중수(龍船과 함께)
- 1893(고종 30년) 7. 3. 중수 연화문 (錦溟)
- 1894(고종 31년). 禮雲禪宗(1873.9.3 ~ ?), 반야·원각경: 배움(晩惺)
- 1894(고종 31년). 翠巖景恩, 東學徒 피해 이석.
- 1896(건양 원년). 友松善明(1879.11.1 ~ ?) 안거.
- 1897(광무 원년) 1-8. 금명보정. 개강(학인 50여명)
- 1897(광무 원년) 겨울. 龍岩振秀(1868.6.1 ~ 1930.1.2) 개강.
- 1906(광무 10년) 10. 20. 應夏學守(1881.4.8 ~ 1908.3.4) 주석(浩然 법인)
- 1917. 3. 南翼室 중수(주관 龍船, 별좌 元明)
- 1925. 4. 瑞月吉文 주석(사고 P.242)
- 1926. 龍淵斗文 입적(禮雲禪宗 3년간 속복제례)
- 1935. 12. 26. 念佛堂 신설.
- 1936. 4. 23. ~ 5. 31. 體室·祖室·王閣 중수(원주 香雲昌昊, 별좌 月臯在石)
- 1958. 5. 3. 훼손.
- 1992. 8. 8. 광원암 상량.
- 1993. 3. 圓照堂 상량.
- 1993. 8. 9. 해우소 상량.
- 1993. 10.16. 광원암 중창 회향 (玄鋒)

득비得悲

본행本行 | 치문

속가를 떠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얼마나 걱정하실지 생각하면 제 마음도 무거워 집니다. 출가가 뭐 그리 대단할 거라고 무슨 도를 이루겠다고 20년을 넘게 길러주신 은혜를 뒤로 한 채 아무 말 없이 집에서 뛰쳐나온 이 불효를 어찌 다 하겠습니까.

지금도 아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일념으로 손자를 부르며 행여나 뜯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는지, 식사하다 말고 우시는 건 아닌지...

정작 떠난 이는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에 젖어 죄 지음을 망각한 채 오늘도 어리석은 하루를 보냅니다. 언제가 까닭 없는 눈물 후 이젠 그리움도 열어 가는지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 바람 곁에 날려 보냅니다.

바람이 이야기 합니다.

출가자란 슬픔을 간직하는 자라고, 슬픔이 없는 자는 냄새 없는 향과 같다고.

저 또한 이야기 합니다.

내게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그토록 괴롭힌다면,

그 슬픔을 스승으로 삼겠노라고.

남은 여생 평안하시길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 정혜사에서 손자 올림 - 定慧社

새내기 치문반

혜천慧天 | 치문

21일간의 행자교육원을 마치고 4월 7일 사미계를 수계 후 송광사 강원예 입방원서를 냈다. 1차 방부에서 3차 방부까지 받은 인원이 모두 22명이다.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어느 한 곳 같지는 않지만 각각 개성있는 스님들이 모여 한 방향을 향해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본사에서 행자 생활을 마친 스님만 해도 절반이나 된다.

이렇게 22명의 스님들이 모여 송광사 강원 치문반이 결성되었다. 말로만 듣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강원생활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방부들이고 첫 공사! 시작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등줄기에는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공사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갔고 곧바로 취침에 들었다. 새벽예불 끝나고 108배를 하는데 가사장삼을 수하고 절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옷이 땀혀서 뒤로 넘어질 뻔한 것도 몇 차례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강원예의 기본생활부터 행익 등 모든 전반적인 습의를 하나하나 배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윗반 스님들께서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습의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기만 하다.

봄방학 및 비구계 수계 산림으로 인한 임시 방학으로 인하여 습의 기간도 짧고 제대로 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안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 강원을 바라보았을 때는 스님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하며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여 가끔 대나무 문 사이로 기웃거리보기도 하고 찬상 운반할 때 큰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했다. 그리고 사시공양 때 큰방에서 흘러나오는 심경에 귀를 기울이고 먼발치에서 발우공양 하는 모습도 지켜보곤 했다. 이제 하안거의 삼분의 일이 지나갔다. 개인적인 바람은 도반스님이 행자 생활할 때 그동안 잘못 알았던 습의나 그릇된 습관을 고쳐나가고 속인이 아닌 생각, 스님으로써의 위의를 어긋나지 않게 하고 서서히 중물을 들어서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며 인욕과 하심으로 22명의 치문반 스님들이 각각등보체가 아닌 한 몸이 되어 남은 하안거를 잘 보내길 따름이다.

끝으로 강원생활에 잘 적응해서 멋진 치문반을 원만히 보내고 열심히 수행정진 하시길... 치문반 스님들 파이팅! ^^ **定慧社**

정혜사의 하루

시관是觀 | 치문

2시 59분 45초에 대웅전 앞 도량석 목탁이 울리는 동시에 정혜사 큰방에는 불이 켜지고 죽비 3타에 스님들이 일제히 기상하며 침구정리와 간경 좌복정리를 끝내고 큰방에서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5분. 그 안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진다.

50여명의 스님이 큰방에서 함께해도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리 되어지다니 처음 경험했던 정혜사의 생활은 잊지 못할 시간인 것 같다.

움직일 때마다 지적이 나오고 무엇을 해도 단 하루를 멀다하고 지적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다. 아직도 서투르기는 매 한가지지만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아 다행인가 싶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큰방에서 아침 간경이 시작된다. 아주 졸리는 시간이라 목소리가 작다고 수 없이 지적 받고 나면 아침 공양 준비에 바쁘다. 아직 익숙하지 않는 발우 공양이지만 사부대중이 다 모여 죽비에 맞춰 공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했었는데 어느새 익숙해져서 재미도 있고 밥맛도 있는 것 같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상강례와 수업이 끝나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대방에서 만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곳이 있기에 정혜사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쉬운 듯 다시 간경 시간이 되어 큰방으로 가자고 하는 도반스님의 말에 아직 1분이 남았는데 하는 목소리가 오늘따라 밋지 않게 들리는 것일까.

시간이 흘러 사시 예불과 공양이 끝나면 오늘도 역시 반갑지 않는 습의 시간이 찾아온다.

한 것 또 하고 반복 되는 습의. 송광사 하안거 더운 날씨는 땀으로 옷을 적시고 수마는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시관스님 뭐 하십니까' 하는 윗반스님의 목소리에 '앗! 이게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본다.

어느 듯 자유 시간이다. 수석정은 치문반 스님들을 맞기에 분주하다. 법고는 치문반의 마음이 되어 둥당둥당하고 전각은 이야기꾼이 되어준다.

짧았던 하루도 저녁노을에 사라지고 정혜사의 큰방에 다시 이불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불 위에 앉아 다시 내일을 꿈꾸며... 오늘 밤도 지장전엔 불이 꺼지지 않는다. **定慧社**



송광사라는 곳에서

상국床國 | 치문

송광사! 송광사라는 절은 나에게 있어 처음으로 듣는 절이기에 낯선 주위 환경속의 강원으로 방부들이게 된 것입니다. 실은 처음부터 송광사에 오겠다는 생각은 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 9월에 군대가기 전에 수덕사에서 행자 시절을 보내고 치문반 하안거 1학기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수덕사 강원로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에서 이병 때와 일병 휴가 때까지 수덕사 강원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은사스님께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상병 휴가 때부터 은사스님께서 수덕사 강원은 가지 말고 다른 강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에게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수덕사 강원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은사스님의 얼굴은 밝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걸 듣고 다시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2004년 10월에 전역을 하고 은사스님을 찾아뵈었는데 다시 한 번 저에게 '수덕사 강원은 가지 말고 승가대학이나 네가 원하는 강원로 들어가라'고 말을 듣고 전 속으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은사스님께서 나의 근기가 약한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난 그 생각에 이견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광사 강원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은사스님은 환한 웃음으로 저를 대하면서 '잘 생각을 했다. 큰 강원에서 살아 보아야 큰 공부로 되며 많은 도반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송광사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한편으로 호기심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좋은 생각으로 3월말부터 각종 서류와 사진과 준비물들을 준비해서 송광사로 방부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해서 원주 시자행자님의 안내에 따라 참으로 넓은 방에 들어와 보니 허전함과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면서 짐을 정리하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학인 스님이 정중하게 노크를 하면서 삼경 이후에 불을 끄고 빨리 자야 된다고 하는 말에 송광사 강원로 오긴 왔구나 하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 주는 첫 대면의 송광사 인사에 앞날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잠을 잤습니다. 어느 듯 시간이 흘러서 새벽 3시가 되어서 첫 새벽 예불을 경험 했는데 정말 웅장한 스님들의 목소리 속에 심신이 살아 있는 예불에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불 후에 금강경 독송과

108배 하는 곳은 보기 드물고 또 팔정례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든지요. 정말 힘들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신에게 좋은 살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송광사 강원로 입방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른 강원과 다르기에 송광사 강원스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하안거 3주 정도 지나고 보니 강원로 졸업할 때까지 지낼 것을 떠올리면 정말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앞으로 마음 공부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큰 힘을 길러주는 수행의 밑거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도반 스님들이 있고 윗반 스님들의 조언으로 우리들에게 이롭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광사에 온 선택을 탁월한 선택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이유는 고요한 분위기 안에서도 강한 힘이 실려 있는 송광사의 곳곳에 풍경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대나무 길과 넓고도 푸른 산들의 맑은 공기 속에 아귀자귀하게 모여 있는 각 전각.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나무. 양쪽으로 쭉 서 있는 길. 수석정의 시원한 바다보다 더 좋은 물. 산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은 듯 강하게 내려오는 청정한 물들을 보면 방금이라도 수영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맑은 폭포. 산 속의

깊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암자들. 역대 조사 스님의 맥이 살아 있는 송광사의 도량.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광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중 스님들이나 강원스님들이 이런 좋은 도량을 이미 알고 또 여러 스님들께서도 느끼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느끼게 될 것이고 그느낌의 마음공부 속에서 크나큰 복을 짓는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은 이런 송광사에 자부심을 갖고 부처님의 법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곳에서 열심히 수행정진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정진의 노력으로 더욱더 멋진 스님의 법으로써 여러 스님들과 속세의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 줄 송광사의 대중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송광사의 모습을 기대를 해 봅니다.

나 또한 이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학인 스님들 중에 한 명입니다. 비록 보잘 것 없고 마음공부에 힘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러나지 않고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마음공부에 힘써야 된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강원에서 그동안 느낀 점과 생각을 짧은 견해로 송광사에 대해 말한 점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定慧社**

수행자란

정응淨應 | 사집

우리의 삶도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인생에 봄이 있으면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변화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내 인생에서의 계절은 어디일까', '나는 누구지', '어디쯤이나 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긴 겨울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이젠 이곳 송광사도 특유의 날씨답게 무척이나 습하고 답답한 느낌의 하안거 특유의 분위기가 납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바이지만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것이 분별심이고 그렇지 않던 간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도道, 명예, 권력, 금전 이든 모든 일에는 온 힘을 다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보다는 몇 배의 큰 대가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한다는 것, 수행자는 정진 이외에 다른 말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빠르게 살아 왔습니다. 세속에서의 빠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너무 빠르고 큰 기대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매 공양시간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데 언제 고마움을 담고 나를 들여다볼까. 과연 화두를 들고 계실까. 고마움을 모르면 그것은 수행자가 아닌데..."

그래서 수행자에겐 앞뒤를 재지 않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그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까. 이것이 분별심이고 또 뭐란 말이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하지 않으며 참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수궁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견고해서 모든 것을 타파 한다면 부처가 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못한 나름대로의 수행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묵묵한 정진과 더불어 뼈를 깎는 인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중요한 일, 그렇지 못한 일을 따로 구별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부처가 되든 말든! 도를 이루든 말든!

묵묵히 오늘 하루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처요, 도의 완성도가 조금은 성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定慧社**

동화사 비로암 조실 무영범룡無影梵龍 큰스님



대구 팔공산 중턱에 자리한 비로암毘盧庵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모신 대적광전과 『화엄경』 영인본을 소장하고 있는 장경각과 재가자 포교를 위한 선원 및 요사채를 갖춘 조그마한 암자였다. 본당 앞뜰에는 민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된 삼층석탑이 비로암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로 서있다. 마침 신심이 샘솟는 목탁소리가 아담한 전각들 사이로 울리며 고요함 속에 강한 수행정진력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었다.

스님은 '毘盧庵'이라는 편액이 걸린 그렇게 크지 않은 방에 주석하고 계셨다. 중생사衆生事에 대한 연민 탓인지 바깥세상의 소식을 알려주는 가지런하게 쌓여진 신문뭉치와 TV가 방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고 스님에 관한 기사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커다란 세계지도가 역시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스님은 깔끔하게 다려진 잿빛 승복에 오른손에는 염주를 들고 방 한가운데 정좌한 채로 편집진을 맞아 주셨다.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는 작은 방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신다고 하셨다. 그러나 70여년을 수행으로 일관하신 삶의 방식은 아흔이 넘어 간단한 울력과 포행조차도 힘에 부치는 지금까지 하루 4시간 이상을 주무시지 않고 참선과 간경으로 매진하게 하는 강력한 정진력으로 남아있다.

언젠가 어느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불사佛事는 성불成佛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듯이 생의 끝자락에선 지금도 스님은 그저 수행의 노정에 자리하고 계신 것이

로지 부처님 법 아래에서 도를 깨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신 스님은 세치 혀로 지어내는 말의 허망함과 분별심의 망념됨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후학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더 이상 무엇을 묻고 어떤 가르침을 청하기엔 스님은 말의 길이 끊어진 그곳에 깊숙이 자리하고 계신 듯 했다. 시간이 흘러 스님의 침묵이 은근히 원망으로 자리할 즈음. 스님의 진의眞意를 알아채서였을까.

스님은 한마디의 말도 무척이나 아끼고 계셨다. 기력이 약해지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만 굵은 어깨에도 불구하고 꼳꼳한 허리, 아흔이 넘은 체구에도 우렁찬 목소리와 맑고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눈빛은 단순히 기력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강해 보였다.

찾아든 젊은 후학들을 대함에 당연히 기분 좋은 조그마한 정취라도 보여 줄법한데 조금의 들뜸이나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첫 인사로 정중히 올리는 후학들의 삼배를 받으심에도 어떤 권위도 느껴지지 않는 각듯한 자태는 선지식과 하심下心 그리고 자비로움은 서로 대극이 아님을 느끼게 했다.

인사를 하며 드린 강원 소식지 몇 권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눈을 때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시는 모습은 아직도 충기를 잃지 않은 젊었을 때 교학에 정진했던 스님의 흔적으로 느껴졌다. 스님은 연로하신 관계로 거쳐하시

었다.

연만年滿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당당함도 잃지 않으신 스님은 편집진의 여러 물음에 '부처님처럼 살면 되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 뭐 있어' 라고 그 몇 마디의 말 이외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스님은 한마디의 말도 무척이나 아끼고 계셨다. 기력이 약해지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만 굵은 어깨에도 불구하고 꼳꼳한 허리, 아흔이 넘은 체구에도 우렁찬 목소리와 맑고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눈빛은 단순히 기력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강해 보였다.

출가 후 70여 년의 세월 동안 오

하열한 근기의 초심자 학인에게 스님의 말없음은 가슴 깊숙이 환희심으로 전도되기에 이르렀다. 그저 스님을 마주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방안은 범열로 충만하였고 철저한 수행정진으로 한 세월을 매진한 스님의 삶이 오롯이 가르침으로 가슴에 사무치고 있었다.

1914년 평안북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린 시절 낭만적 기질을 지니셨던 부친의 영향으로 한때 세계 일주를 꿈꾸던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부친과 탁발스님과의 사난득四難得에 대한 대화를 엿듣고는 화두처럼 가슴에 품은 불법난득佛法難得을 해결해보고자 23세



비로암 대적광전

때인 19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당시가 워낙 곤궁한 때라 끼니 걱정에 하루살이 같은 강원 시절이 었지만 간혹 도반스님들과 흠쳐 먹던 도둑 밥은 과거의 애뜻한 추억거리로 스님의 가슴속에 지금껏 남아 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속가에서 이미 불경佛經 읽기를 즐겨했던 스님은 유점사에서 경전 공부에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아서 당대의 도인으로 명성이 자자하셨던 한암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오대산 상원사에 방부를 들여 한암 스님에게 『금강경』과

『보조법어』와 『화엄경』을 수학하셨다. 이 당시 맺어진 『화엄경』과의 인연은 《화엄학》에 대한 남다른 지견을 지니게 되어 훗날 한암 스님의 한글토가 달린 『화엄경』을 직접 영인해 내는데 이른다.

언젠가 범룡스님은 『화엄경』의 큰 뜻이 마음 심심 자 하나에 다 들어 있다고 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은 경이 부처님 말씀이라지만 불법은 정작 경밖에 있다는 말과도 통한다. 다시 말해서 불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물이 더운 지 찬지 마셔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체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암 스님은 스님에게 ‘부득작진무지무不得作眞無之無, 부득작유무지무不得作有無之無’라고 하는 ‘無’자 화두를 내리신다. 한암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내려받은 스님은 운수납자가 되어 전국의 선원을 유전하면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오대산에서 범어사까지 걸어가면서 화두를 참구하기도 했고 일보일배를 하면서 참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하다가 삼매에 든다. 몸도 마음도 눈동자도 모두 움직이지 않으며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거울이 되어 사물을 그저 비추는 경계에 도달한 것이다. 훗날 스님은 이날의 일을 궁금해 하는 눈먼 후학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깨달음이 있긴 뭐가 있어! 첫날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날이 첫날이지”

깨달음을 얻고자 함과 그것을 이루고자 수행함에는, 시작과 끝이 없고 깨달음이란 것 역시 깨달음과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는, 일체가 원융圓融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스님에게는 바로 깨달음이 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수행함에도 하루하루가 아쉬워서 일까. 부처님 법 안에서 말이란 한낱 허망한 분별심의 배설물이어서 일까.

스님은 말 많음을 애써 회피하셨고 그 많은 나이에든 수행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영역이 간섭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듯했다.

“이젠 기억도 안난다”

유점사 강원시절이 궁금해 마주 앉은 후학들이 던진 질문에 되돌아오는 다분히 의도적인 듯한 냉랭해 보이는 대답. 새싹처럼 풋풋한 초학자의 질문에든 인정에 끌리지 않는 완고함. 스님은 그저 엄



비로암 삼층석탑(보물 247호)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244호)

주만 돌리고 계셨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았던 지난날들은 여지껏 요지부동의 동일한 하루로 반복되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그저 마음자리를 챙기며 수행하는 것이었다. 깨달음 위해 수행함에 지난 세월은 한 찰나였지만 스님의 마음 안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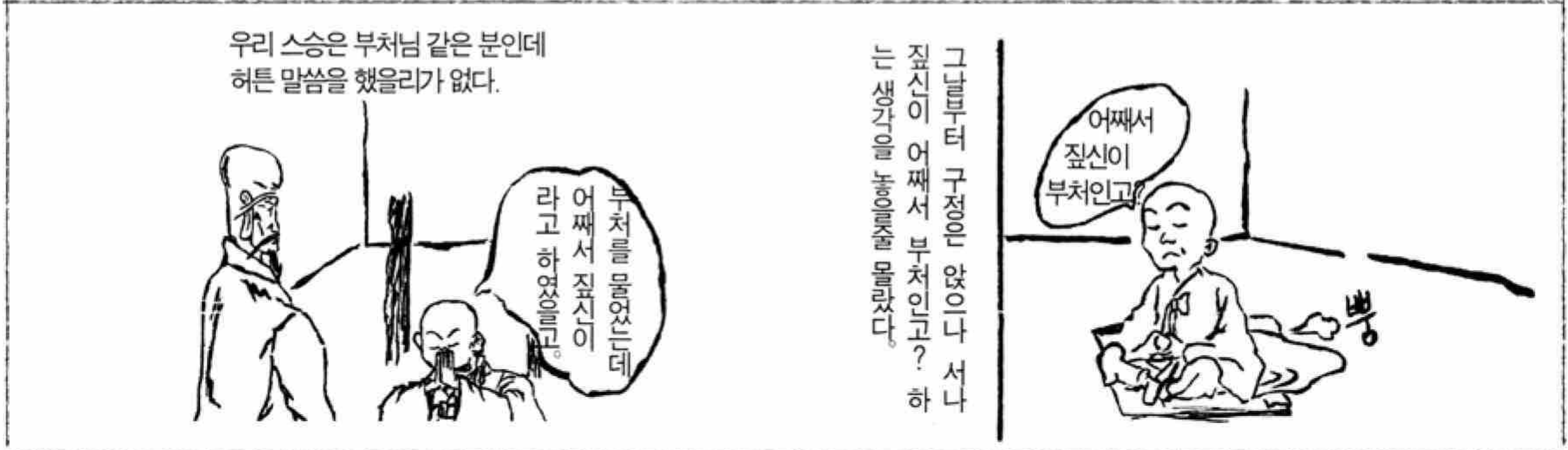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새롭게 확인하는 것, 그래서 스님에게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가르침이 최상의 방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은 서운함이나 아쉬움보다는 환희심이 되었고 스님을 에워싼 광휘로 빛을 발하며 가르침 없는 가르침으로 마주앉은 후학들에게 전해져 왔다. 그 어떤 언설을 방편으로 한 가르침보다 값진 것이어서 온전히 가슴에 담아오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었다. **定慧社**

취재 | 편집실

범룡 큰스님은 1914년 평북 맹산에서 태어나 1935년 만허 스님을 은사로 유점사에서 출가하시고, 1941년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상원사·수덕사·범어사·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셨고, 1994년 봉암사 조실과 1999년 전계대화상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하고 계신다.

짚신즉불

글·그림 서림西林 | 사집





"짚신이 부처다?"
"짚신이 부처다?"
"짚신이 부처?"
"짚신이 부처?"
"?"
"?"

하루그리 부엌에서 불을 때면서
하다가 <짚신이 부처?>라는
말이 웅얼거리면서 화두가 의정
이 되었다.

그는 길고 긴 심중심리로 들
고 들어가고 말았다.



음...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다.
아이고 또 망상이 생겼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았
는지 서있는지도 몰랐다.



짚신이 부처? 라고 생각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홀연히 짚신의 끈이 '툭'
끊어지는 순간...



아~ 이것이구나.



순간 활연대오 하였으니
이분이 구정조사사이다.



○○스님께

덕현德賢 | 치문

혹 이글로 인해 ○○스님께 폐가 될까 염려스러워 이렇게 이니셜로 스님의 범명을 대신하였습니다. 부디 스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우리의 인연이 참으로 깊고 깊은가 봅니다. 행자시절부터 치문 생활까지 함께하니 말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도 치고 화도 내고 그랬지만 대부분 스님 특유의 참는 마음으로 대해 주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행자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 때가 아마 삭목일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저녁예불이 시작되고 좀 지났을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독한 냄새가 코를 강타하더군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던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일까. 다름 아닌 방귀 냄새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방귀 냄새 때문에 고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굴까. 설마 행자가 과감하게 예불 중에 이런 테러를 감행 하지는 못할 테고... 아! 뒤에 계신 스님 속이 많이 안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정화되고 다시 예불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다시 코를 강타하는 방귀냄새.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까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는데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지심귀며 ~ 멍~ 킁!킁!킁!, 지심 ~ 귀 ~ 푸후! 푸후!'

이 반응은 스님이 아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옆을 보니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예불문을 따라하고 있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걸 보고 필(Feel) 받았다고 하는 건지...

갑자기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행자님 오늘 일내는구나!

그간 행자님이 보여 주었던 방귀 위력! 그것을 훨씬 넘어 초 울트라 메가톤급으로 주위를 초토화 시키더군요. 또한 행자 신분으로 이렇게 극악무도한 테러를 행할 수 있는 그 대담성 정말 대단해요. 아무튼 공기정화는 왜 그리 더디던지 이미 팔정례가 끝나고 백팔대참회문이 시작되었지요. 어느 정도 지났을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윽한 향기! 그와 동시에 머리에서 떠오르는 한 단어 '웅!단!폭!격!!!'

그건 사람이 낼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쨌려 봐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무슨 일 있나 하는 듯한 표정 참으로 잔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신경을 집중해 보니 스님들은 조용하더군요. 전부 냄새에 고통스러워하며 '푸후~후~후' 혹은 '쿨럭~킁!킁!' 정말 범당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듯 참회문도 막바지에 들어서고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소리를 내었죠. 하지만 스님은 저의 이런 생각에 카운터를 날려버리더군요. 소름이 짝 끼칠 정도의 지독하고 강렬한 향기!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 마실 때 제대로 마셔 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확인사살 이더군요. 문득 주위에 귀 기울여 보니 신중단은 조용했습니다. 행자님들까지 조용했었습니다. 전부 괴로워하며 '푸우~후~' 이 향기가 날 때 마다 '지~심~귀~며~ 킁!킁!~' 이렇게 괴로워하는걸 보고 제 마음은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스님!

이날 질식사고 나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불이 끝난 뒤 한 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현실인지 사람이 낼 수 있는 냄새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당정리가 끝나고 행자실로 들어가는 순간 대방에서 들리는 아주 귀에 익은 소리. 그것은 바로 백팔대참회문 소리였습니다. 스님의 방귀로 간경 대신 참회문이라. 갑자기 소름이 짝 끼치더군요. 스님 방귀의 위력을 증명하는 듯 했으니 말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랑 같이 생활했던 모 스님이 이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일러주더군요. 스님이 대업을 이룩한 그날 저녁 예불 안행 중 보조국사 감로탑 계단에 올라갈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이 힘 조절에 실패했는지 그 살상무기를 발사했다고 하더군요. 계단 오를 때 출구의 위치가 뒷사람 얼굴과 정확히 일직선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 뒤따라오던 그 스님 그걸 맞고 계단에서 구를 뺐 했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 암자에서 계를 받기 위해 내려와 같이 생활했던 스님이 삼경종 치러 갔다가 뒷 짐 지고 방황하던 몰상식한 모습을 원주스님께 발각당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단체참회를 선물하였지요. 이런 날에도 스님은 어김없이 향기를 선사하더군요. 절하며 턱까지 차오른 숨을 더욱 가쁘게 해 주셨죠. 그날 후 단체 참회할 때는 언제나 혼자 뚝 떨어져 절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원주스님 발심수행장 수업 시간 때 계획했던 테러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피력이 원주스님을 보호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여름감기도 무섭다고 하던데 언제나 건강하고 남은 하안거뿐만 아니라 강원 졸업하는 그날까지 같이 잘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定慧社**

※ P.S : 제가 이니셜로 썼으니 스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도 스님이 누군지 눈치 채신 분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다 스님이 지은 업이니깐요.

발우공양

능엄楞嚴 | 치문

처음 먹물 한 번 제대로 잘 들여 보겠다며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송광사로 향했다. 큰 소나무들과 오순도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기와집들이 '어이와!' 라며 반겨주었다. 강당에 입방해서 살다보니 나 또한 법당에 있는 기둥이나 서까래처럼 자연스럽게 송광사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송광사는 삼시 세끼 발우공양을 한다. 공양시간이 되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스님들이 하나 둘 정혜사 큰방으로 모여 앉는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죽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뭘 스님이 이렇게 많다냐' 하며 이런 광경이 너무 생소한 나머지 두리번 두리번 쳐다보느라 밥 먹는 것은 뒷전이었을 정도였다. 그러다 윗반스님으로부터 경책을 받기도 하고 말이다. 가끔 힐끔힐끔 보고 있다가 죽비를 '탁!' 치면 깜짝 놀라서 도반들과 같이 허겁지겁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차츰 익숙해짐에 따라 주위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조금씩 느끼고 성숙하게 한 것들을 적어보려다.

발우는 응량기應量器라 한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응량기를 받아 지니고 모든 중생들이 도업을 이루기를 발원한다.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성질이 다르듯이 각 스님의 각기 다른 크기와 색깔과 재료의 발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볼 때면 발우 공양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조금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정리되고 공양종이 울린다. 종소리가 가슴을 울리고 속으로 들어와 깊은 곳으로 점점 사라지면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 삼매에 든 것처럼 편안한 침묵이 흐른다.

'탁!' 날카로운 죽비소리에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그리고 발우를 펼친다. 모든 일들의 시작이 선사스님의 말씀처럼 '배고플 땐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일이 있으면 마음을 일으킨다' 라는 말과 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차르르!' 천수를 따르는 소리가 들린다.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자면 마치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올 때처럼 맑고 상쾌함이 내 가슴을 씻어 내린다. 따뜻하고 깨끗한 천수를 나눠가졌으니 모두 흐뭇하리라. 그리고 진지와 찬이 돌아간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발우에 덜어 담는다. 어디에서 왔는지 신선한 음식이 발우에 담겨진다. 발우에 담긴 공양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사대四大인 흙·물·불·바람이 조화를 이뤄 담겨진 나를 올려다본다. 잠시 '먹어도 되냐' 하는 생각을 해보며 수저를 든다. 하지만 이때 항상 무덤덤함과 새로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섞인 묘한 분위기를 느낀다.

부처님께서서는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출가자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들도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쉬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덤덤하게 느끼고 수행에 집중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다 자칫 갈피를 잘못 잡아서 단월의 시주를 당연시 하게 되고 본뜻을 잊어버리는 자신을 볼 때면 깜짝 놀라 다시 마음을 잡곤 한다. 이와 같은 무덤덤함으로 발우를 쳐다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수저로 떠서 한 입 넣었을 때 단 한 번도 어제 먹은 밥과 같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되새겨 기억을 먹고사는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공양물임에 깨어 있으려 하다 보니, 들숨과 날숨처럼 모순된 감정을 어리어리하게 담고 공양을 하게 된다.

부지런히 씹으면서 가끔씩 다른 스님들을 조심스럽게 보곤 한다. 노스님부터 우리 치문반에 이르기까지 스

님들의 과거·현재·미래가 큰방에서는 동시에 펼쳐지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각자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것을 보며 '내가 지금 짓는 이 모습이 이 가운데에 한 모습이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에서야 대중공양이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시간만큼은 큰방이라는 공간에서 스님들은 물론, 불보살님부터 귀신, 아귀에 이르기까지 한 무리를 이루어 함께 공양하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낀 후에야 입으로는 정신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귀로는 대중이 공양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다보면 부처님께서 사천왕이 각기 공양한 발우를 하나로 합쳐 큰 발우를 만드셨듯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발우도 하나둘씩 합쳐져서 아주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배가 불러온다.

그렇게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배고픈 중생들이 먹을 밥을 담을 수 있는 발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탁!' 공양은 끝나고 천수가 다시 한 곳으로 모인다. 흩어졌던 것이 한 바퀴 돌아 하나로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은 항상 가슴에 어떤 여운을 남긴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하나로 모이는 날이 올 것이다.

'탁!' 발우를 깨끗이 닦는다. 우리 몸도 이와 같이 닦고 닦아 부처님 감로수를 담을 맑은 그릇이 되리라. 발우를 싸고 모든 일을 마쳤다. 다시 잠깐의 침묵! 하지만 충만된 침묵이 흐른다.

'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두 각자 발우를 들고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먹은 음식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하화중생下化衆生이 되겠지만 그 삶의 열정과 사랑은 내 깊숙이 남아 나를 대승의 바른길로 튼튼히 나아가게 하리라.

난 또 다른 발우공양을 찾아 움직인다. **定慧社**

감로甘露

불각佛覺 | 사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졸음을 쫓으며 경을 보고 있었는데 잠을 깨우듯 급한 목소리로 도반 스님께 서 저를 찾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어느 보살님이 통화를 원한다며 10분 후에 전화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대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도반스님이 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벨소리가 울려 받아보니 점잖은 목소리의 보살님이었습니다.

보살님과 인사를 건넨 후 강원 소식지인 정혜사 30호 '참회와 청정수행'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되고자 약콩과 현미 등 여러 가지 섞어서 분말을 내어 보내드릴 터이니 병마를 이겨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연락처를 여쭙어도 대답은 없이 다음에 들려서 찾아뵙겠다는 끝인사로 지금까지 매달 정성스럽게 봉지에 겹겹이 쌓인 뽕얀 약콩가루가 제 앞으로 배달되어옵니다.

보살님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멀리서나마 마음속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로 대신하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볼 때면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평범한 보살님으로 몸을 나타내어 이 공양물로 대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뇌리 속을 스치고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공양물이 감로와 같은 생각이 들 때면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 속에는 제가 너무 몸이 아파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었던 옛 추억 속의 시절을 되살리곤 하지요. 그 추억속의 부모님 같은 보살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기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수행자로서의 신심을 내어 정진에 힘써서 진정한 보시와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먼 훗날 보살님이 어떤 스님에게 감로와 같은 약을 진심으로 보시해 준 혼자만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로를 전해주는 수행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디선가 또 다른 스님들에게 이런 배움을 가르쳐 준 보살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초발심의 귀경이 되어 구경의 도를 증득하겠다는 한 생각을 냄으로써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보살님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발원함으로 힘을 얻어서 한 티끌 남지 않는 경책과 방편의 만남과 동시에 우리 주위에 항상 불보살님이 두루 하시다는 것을 알아채어 열심히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심의 마음으로 진정 보지 못 하게 될까 걱정이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걱정하는 마음도 관세음보살께서 보살펴 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생각에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밤낮으로 부처님의 법과 공양물에 대해 소중하게 하고 도업을 기필코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살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저의 정성이 담긴 마음의 글로 통하여 보살님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끼치게 된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하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준다면 환한 미소로 읽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定慧社**

어리석은 자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두 비구가 서로 다투었다. 한 사람이 욕을 하고 꾸짖어도 한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다.
욕을 하던 비구가 곧 뉘우치고 사과하였으나 침묵하던 비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 안의 비구들이 서로 권하고 충고하느라 시끄러웠다.
이러한 사정을 아시게 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어리석은 비구가 남이 뉘우치고 사과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남의 뉘우침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랜 동안 이익 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남을 해칠 마음 없었더라면
성냄에 또한 얽매이지 않으리니
원한을 품어 오래 두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는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살피 나가라.”

잡아함경 제40:1108경:〈2-291하〉
별역잡아함경 제2:37경:〈2-385중〉
Mildness. 〈S. N. 1. p-307〉



송광사 치문반

지성知性 | 치문

안녕하세요. 전 송광사 강원 치문반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원에 입방한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군요. 전 어려서 절에서 성장하여 남달리 개구쟁이였던 터라 법당을 놀이터 삼아 지냈습니다. 그 후에도 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제 이야기를 했고요. 치문반 도반스님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현재 반장소임을 보고 있는 연본스님. 듄직하게 치문반을 이끌어 가는 치문반의 기둥이지요. 힘들만도 할 것인데 티내지 않고 열심히 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해 반 화합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반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 치문반 스님에게 티도 보시하셨죠. 쿨론티 좋더군요.

법공스님은 봄 산철 반장소임을 보고 지금은 간병과 차량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사미반을 지내고 현재 치문반에서 가장 오래 생활을 했죠. 웃음소리가 특이하며 애정결핍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대중들과 잘 어울리고 착하답니다. 법공스님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 생겼다고 생각하지요.

자각스님도 또한 사미반을 지내고 법공스님 다음으로 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끔은 상황에 맞지 않는 특이한 질문으로 대중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치문반에서 한자를 제일 많이 알죠. 특히 불량과자를 좋아하고 물소리를 좋아하는 운치 있는 스님이랍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가 빠져 걱정이라고 하시는군요.

상국스님은 제가 쓰고 있는 백일장을 담당하시는데 이번에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1년차 스님이랍니다. 얼마 전 함께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 도중 뒤에 있는 분이 상국스님에게 '1년차 세요' 상국스님 왈, '네~' 왜인지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아울러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스님이랍니다.

능엄스님은 얼굴보기가 힘들지요. 왜냐고요. 쉬는 시간에는 사라지거든요. 엉뚱하기로 말하자면 치문반에서 누구도 따라 갈 수 없는 독보적인 스님이랍니다. 그 반면 치문반의 최고의 노력파라고 할까요. 앉으면 결가부좌를 쉬는 시간에는 간경을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송광사에서 절하는 모습이 가장 독특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시관스님은 치문반 최고의 큰스님이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개인전용 옷걸이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고집. 금생에는 듣기가 쉽지 않은 염불 등 그리고 사집반과 사교반까지 참회를 하게 한 대단한 스님이랍니다. 저희가 방부를 들이고 얼마 되지 않아 상강례 시간 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집반 스님들이 들어와 치문반에게 얘기 도중 큰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관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윗반 스님이 '스님, 사집반입니까' 다음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혜소스님은 인상파 스님이지요. 덩치, 얼굴, 궁금하다면 송광사 강원대 오십시오. 그래서

일까요. 일도 잘하고 힘도 좋고, 치문반 습의장이랍니다. 알고 보면 숨은 재주가 많은 스님이랍니다. 그리고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지요. 장난끼도 많고 재밌는 스님입니다. 마지막 치문반 최고의 축구 수비수랍니다.

진각스님은 방부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방(지전) 이라는 소임을 보며 고생도 많이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음에도 티내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대나무를 깎아 피리를 불 정도로 멋있는 스님이랍니다.

혜공스님은 있는 듯 없는 듯 같으면서 그렇지 않은 스님. 목소리 하나만큼은 정말 크답니다. 대웅전에서 저녁 종성을 하면 사중에 다 들릴 정도니 말입니다. 지금은 수두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연관스님(갈색을 위장한 빨간 뿔테 안경)은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며 아는 것이 많답니다. 대중화합을 중시하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대중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스님입니다. 수석정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피로가 풀린다는 자연을 좋아하는 스님이지요.

종관스님은 혜소스님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강원에서도 울력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마도 치문반에서 하는 울력의 상당량을 이 두 스님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화끈하게 처리하지요. 혜소스님과 둘이 있으면 안성맞춤이죠. 허나 종관스님 또한 외모와는 다르게 마음이 좋아요.

고봉스님은 느린 말투와 좀 어색해 보이는 웃음. 몸이 좋지 않아 고생하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생활한답니다. 아울러 손과 발이 몸에 비해 좀 큰 편이지요. 그래서일까 손재주가 좋아 만드는 걸 잘하죠. 그리고 윗반에서 인정하는 축구선수랍니다. 마지막으로 빵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요. 빵을 좋아하거든요.

혜천스님은 조용한 스타일로 송광사에서 생활을 오래 했죠. 강원엔 오자마자 삼일암 시자를 보고 있어 얼굴보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강한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죠.

시명스님은 국직한 목소리와 독특한 억양 '남자라면 나처럼 이리 생겨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족구할 때의 특이한 기합소리! 지금은 피곤한 지 옆에서 인사를 하는군요. 큰방 소임(지전)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진수스님은 일명 십육나한으로 불리며, 엉뚱하기로 일인자이지요. 사집반 지대방을 치문반 지대방으로 생각하고 들어갈 정도의 엉뚱한 면을 가지고 있죠. 항상 특이한 자세와 웬지 힘들어 보이는 눈빛. 완벽한 사투리와 특이한 언어구사 능력, '네 정도는 해야지예~' 약간의 미소 띤 얼굴로 무엇이든지 본인처럼 해야 한다고 말해 대중을 즐겁게 하며 알면 알수록 재밌는 부분이 많은 스님입니다.

덕현스님은 치문반 서기 소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남들보다 유독 많이 흘리는 땀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치문반 누구보다도 액션 하나 만큼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션이란. 모든 생활을 말하며 예를 들자면 예불시 숨을 들이마실 때 움직이는

어깨의 모양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시다면 옆에 스님에게 물어보세요.

본행스님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치문반을 위해 이것저것 잘 주워오는 스님이죠. 얼마 전 물 항아리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받침으로 쓸 나무통을 가지고 왔더군요. 부지런도 하지! 지금은 강원을 위해 다각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체력이라고 할까요. 움직이면 자야 하거든요.

두운스님은 치문반의 해병대, 최전방 공격수, 최고의 스트라이커지요. 누구보다도 하심을 잘하는 스님으로 뭐든지 열심히 한답니다. 처음 방부를 들일 때 특이한 해병대 억양으로 모든 이에게 각인되었지요. 지금은 큰방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정효스님은 샤프한 외모와 딱뽀어지는 행동. 평상시 얼굴에 별다른 표정이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모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다니며 본인만의 일을 하고 다닙니다. 정효스님도 가장 힘들다는 큰방 소임자입니다.

신해스님은 2차 방부의 마지막 좌차로 치문반에서 영원한 말차가 될 번 하였으나 3차 방부 담연스님이 옴으로써 그걸 막았지요. 아울러 신해스님이 치문반에서 제일 젊답니다. 반면에 재주가 많지요. 염불도 잘하고 간경도 잘하며 대중들과 잘 어울린답니다. 단, 잘 씻지 않는 것이 좀...

담연스님은 저와는 장난도 잘치고 농담도 잘 주고받는 스님이지요. 3차 방부라는 이유로 치문반에서 말차라는 좌차가 붙어 다니게 되었답니다.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장난기가 많아 자주 엉뚱한 행동도 한답니다. 한번은 퇴수통에 김을 빠트리려 저에게 넘어왔더군요. 어찌겠습니까. 떠서 마셨지요. 가끔 엉뚱한 행동을 잘 하지요. 그래서 일까요. 치문반에서 인기가 제일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개구쟁이이며 아직은 공부도 부족하고 뭐하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공부할 준비과정에 있는 수행자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定慧社

시주는施主恩

해산慧山 | 사집

얼마 전 하안거를 대비하여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짐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이 더욱 많았고 같은 종류의 물건뿐만 아니라 출가 수행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또한 적지 않아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나니 짐은 가벼워 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전에 짐 정리를 마치고 사시공양 때 지전 소임자로부터 발우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동당스님께서 몇 분 일찍 큰방에 들어오시며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 구산스님께서 일천구백〇〇년 이곳에 방장으로 오시면서 그러셨지. 내가 경상도에서 이곳 전라도로 온 것은 그 만큼 시주는을 적게 받으며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이야. 하~ 어디 요새 애들 이런 생각이나 해! 그저 몸 편히 지내고 배불리 먹으려고만 하지. 그때 절 집 땅을 파면 구렁이가 득실대잖아. 그렇잖아. 응! 알겠어’

그때 주위의 다른 스님들께선 조용히 웃고 계셨지만 전 오전의 일이 가슴에 걸려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공양 계송 가운데 ‘~等三輪空寂’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시주자와 시주물 그리고 시주를 받는 이가 진리의 경계에선 결국 공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시주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자에게만 해당될 뿐 허물이 많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았습니다.

공양을 하며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공양, 이 시주물을 과연 소화시킬 자격이 있는가. 그 수고로움과 공력을 나의 수행력으로 희생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힘겹게 공양을 마치고 전 당장 관물장을 열어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과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새 수첩에다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행에 필요 없는 물건은 관물장 안으로 들이지 않을 것이며 보시금이나 해제비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날 새벽 소리간경시간. 여느 땐 졸린 눈으로 그냥 지나쳤을 위산경책의 한 구절을 새겨 보았다.

“檀越所須에 喫用常住호되 不解付思來處하고 謂言法以合供이라 하여 喫了코 聚頭喧喧하여 但說人間雜話하나니 然則一期眞樂이여 不知樂是苦因이로다.

시주들이 바라는 바가 있는 상주물을 먹고 쓰되 그 온 곳을 헤아리지 않고 법답게 받음에 합당하다고 하여 먹고 나서는 머리를 모아 세간의 잡스러운 이야기만 함이니 한 순간의 즐거움이 죽음이요, 고통의 원인임을 알지 못함이로다.”

출가 대장부로서 응당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을 목표로 전심전력함이 마땅함이나 최소한 시주는만 잔뜩 지고서 그것을 녹이기 위해 다음 생에 소의 몸을 받는 일은 참으로 없어야겠습니다. **定慧社**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무영無影 | 사집

眞月

참달.

고1때 해인사 원당암 수련회 때 받은 불명이다.

법사스님께서 뜻을 알려 주셨으나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묻고 싶었지만 물을 겨를도 없었고 지나고 나서야 내 나름대로 뜻을 찾고 싶었다.

달을 보며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내 나름대로의 뜻을 찾았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같이 나도 세상의 달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어쩌면 이 마음에 출가 사문의 길을 걷게 된 작은 인연이 아니었을까.

無影

그림자가 없다.

송광사에서 출가하여 은사스님께 받은 범명이다.

계를 받을 때가 되어 스님과 면담 중 범명에 대해 물어보아 진월이란 불명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진월을 범명으로 해도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월이라는 불명에 애착을 갖고 있던 터라 범명을 진월이라 해도 좋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윗 사형인 무안스님 덕분에 은사스님께서서는 범명을 새로 지어 주셨다.

個個有眞月 누구나가 하나의 참달이 있어 淸淨光圓滿 청정한 그 빛이 원만히 밝아
恒照三千界 항상 삼천세계를 두루 비추되 尋見由無影 자취를 찾아보니 그림자 없네.

은사스님께서 범명을 지으면서 적어주신 계송이다.

비추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에게 비춘 그림자도 없으라니 너무 큰 숙제를 내주신 느낌이었다. 비추기도 쉽지 않은데...

眞月無影

참달은 그림자가 없다.

불명 받은 계송을 보다가 진월과 무영을 합쳐보니 이런 뜻이 나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두마냥 내 마음속에 맴돌던 글자다.

연숙緣熟이라 했던가.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자연스레 연이 익어 깨달음에 이르듯이 참달(眞月)이 되어 두루 비추나 그림자 없는(無影) 나에게도 그런 인연이 도래하길 애써 바랄뿐이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다만 비추지는 못할지언정 달빛을 가리는 구름일랑은 되지 말자. 定慧社

詩가 있는 풍경

출가出家

신해信海 | 치문

새벽의 새소리
고요히 들리며

부처님 같은 광명의 빛
창문으로 들어와 얼굴을 비추네.

출가하는 것을 알고
마치 나에게 마지막 연주를 해주는 것 같네.

풀잎 위에는
아침 이슬이 맺히고

어머니의 고운 뺨에는
진주 구슬이 맺혀 흐르네.

절로 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지만

잔잔한 물위에
발걸음은 무겁지만

잔잔한 물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푸른 창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나의 마음은
가볍기만 하구나.

방하착放下着

도해道海 | 사집

알음알이를 놓고 비우면 天上天下가 寂滅하고
알음알이를 들고 가지면 世上萬象이 답답하네.

한마음 놓은 자리 明寂한 菩提향기 나고
한마음 생각 넘어 三千大千世界가 펼쳐져 있도다.

어제는 바람 불고 오늘은 비 내리고
봄비가 앞산 지나가니 매화향기 진하네.

도반道伴

유신倣信 | 사집

몇 겁 전생의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도반이 되어
오로지 법만을 위할 뿐
또 다시 무엇을 위하겠는가.

도반이여! 가자.
황면노자의 신비스러운
가르침 위에서
함께 뒹굴며 놀아보자.

엷히고 뒤섞여 하나 되어 놀다보면
저들의 큰 웃음소리
들릴 날이 아니 오지 않겠는가.
한바탕 놀아보자.

무엇을 두려워 할 것인가.
저들에게 든든한 병풍이 되어주는
사자후가 있지 않는가.
한번 크게 웃어보자.

『書狀』을 통해서 본 看話禪法

혜도慧度 | 사집

『서장書狀』은 대혜종고大慧宗杲스님이 주로 송대宋代 사대부들에게 ‘선공부에 관한 여러 요지’를 답해준 편지글을 모은 서책書冊으로, 그의 제자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황문창黃文昌이 중편한 『대혜어록大慧語錄』 30권 가운데 25~30권에 해당한다.

책의 구성은 상하로 나뉜 2권 1책으로서, 총 65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혜스님이 26년간 당대의 사대부들과 나눈 묵조선默照禪에 대한 비판과 간화선법看話禪法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본래 제목이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인 『서장書狀』은 참선의 지도서로, 선문의 요지를 직절直截하고도 철저히 설명해 놓았는데 선가禪家에서는 『육조단경六祖壇經』과 함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서장書狀』의 전편을 걸쳐 전개되는 대혜스님의 주장은 묵조선의 쇠됨과 간화선법의 적극적 독려이다. 당시 참선수행은 사대부들의 문화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점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여러 수행법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대혜스님은 오로지 고칙공안古則公案을 참구하는 간화선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방편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 임제종臨濟宗에서는 이미 조사의 언구言句 즉 공안을 참구하는 간화선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오직 공안을 깊이 참구해야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대혜스님이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간화선은 새로운 시대적 선법으로 인식되고 조직되었다.

공안公案이란 공부公俯의 안독案牘 즉 관공서의 문서란 뜻으로, 법칙의 조문條文을 말하는데 사적私的인 감정이 개입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대성

을 의미한다.

선문에서는 불조佛祖가 개시開示한 불법의 도리道理를 의미하는데, 학인들이 분별의식을 떨쳐 버리고 참구하여 깨달아야 할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부터 대혜스님의 『서장書狀』을 통해서 간화선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혜스님은 《답부추밀答富樞密》에서 공안참구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로지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 사랑분별하는 마음, 생생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내리 누르고 그 내리누른 곳에서 오로지 화두만 살피십시오.

한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에게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가 “없다無”고 답했습니다.

이 ‘무無’ 한 글자야 말로 수많은 잘못된 알름알이와 지각知覺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무자화두無子話頭를 참구參究 할 때는 유有다 무無다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치로써 이해할 수 없고, 의근意根으로 사랑思量 분별分別 할 수 없고, 눈썹을 치뜨고 눈을 깜박이는 곳에 뿌리박지 않아야 하고, 언어를 통해서 살림살이를 짓지 말고,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 보이는 곳에서 지레 짐작 하지 말고, 문자를 인용해 증거 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루 종일의 행行·주住·좌坐·와臥 속에서 순간순간 잡아들이고 순간순간 주시注視하십시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無”고 한 이 화두를 일상생활 속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관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문득 스스로 볼 것입니다。」

대혜스님의 공안선은 일체의 분별심分別心, 차별심差別心을 억누르고 그 곳에서 조주의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공안은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도록 하는 절대적인 참선의 방편인 것이며, 이러한 공안 참구로서 무분별하고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심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간화선에서의 공안은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조고照顧해 보는 도구道具인 것이다.

대혜스님의 공안선에서는 주로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혜스님은 송초宋初 이후 사대부들의 참선이 증가됨과 아울러 지나치게 송고문학宋古文學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안 본래의 의의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즉 조주의 '무無'자와 같은 조사들의 공안을 응용하고 조합하여 자기의 근원적인 심지心地를 개발하도록 궁구한 것이 공안선인 것이다. 대혜스님은 이처럼 자기의 근원적인 심지를 개척하기 위한 공안의 사명을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대의심大疑心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대혜서大慧書』《답여량중答呂郎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오직 한 의심 일 뿐이니 화두 위에서 이 한 의심만 타파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타파됩니다.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오직 화두 위로 나아가 극한까지 겨루어 나가십시오.

만약 화두를 포기해 버리고 오히려 따로 문자 상으로 의심을 일으키고, 경전의 가르침에서 의심을 내고, 옛 조사들의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나날의 잡다한 번뇌 속에서 의심을 내는 것은 모두가 사마邪魔의 무리입니다.

또 화두를 들어 보이는 곳에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헤아리지도 말고, 오직 뜻을 오로지 하여 사랑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사랑하십시오.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늙은 쥐가 소뿔로 들어가면 홀연히 뒤집히면서 꿰어짐을 볼 것입니다。」

대혜스님의 공안선은 의심이 타파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대오의 수단으로 주장된 것이다.

대혜스님은 당시 단순히 좌선 명상의 정신집중 차원에 머물러 있던 선(枯木禪)을 목조의 사선邪禪이라고 『서장書狀』전편에 걸쳐 배척排斥하고 있다.

이를 『대혜서』《답증시랑答曾侍郎》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 선문禪門에도 일종의 외도外道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눈도 밝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은 고슴도치처럼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쉬려고 한다면, 모든 부처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다 해도 끝내 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할 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연 따라 늘 지니고 다니면서 정情을 잊은 채 묵묵히 비추라고(默照)하지만, 오나가나 비추라 하고 오나가나 늘 지니라 하고 하니 오히려 더욱더 답답할 뿐 법을 요달了達할 기약이 없습니다.

다분히 조사들의 방편을 잘못 안 탓으로 잘못 가르친 것이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을 헛되이 살다죽게 만들 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간섭치 말고 오로지 이렇게 恁麼 쉬어라. 쉬게 되면 정념情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이 상태는 흐리멍텅한 무지 상태가 아니라 또렷 또렷하고 분명한(惺惺歷歷)상태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역시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쳐 눈을 멀게 만드니, 정말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 이런 작자들을 보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경전이나 조사어록祖師語錄의 글귀만 갖다가 상투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작자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을 신뢰한다면 영원토록 참선공부를 하여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대혜스님의 목조비판과 간화선의 주장은 북주福州 설봉산雪峰山에서 진혈청료眞歇清了(1088-1151)가 어느 한 시기에 주장했던 목조선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당시 진혈을 따르는 많은 사대부들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혜스님이 비판한 목조선의 사상은 승조僧肇스님의 『조론肇論』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조사선의 역사로 볼 때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달마 벽관壁觀의 기본정신인 것이며, 본각적本覺의 인 돈오선頓悟禪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목조가 사선邪禪이라면 달마나 혜능, 마조나 임제의 선禪도 사선邪禪이다. 대혜스님의 비판은 오히려 본각적인 원리에 떨어져 이원적이고 점수적漸修的인 고자枯坐에 집착되어 있는 사선邪禪에 대한 비판이다.

대혜스님의 이러한 비판적인 사상은 실로 목조선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대혜스님이 비판한 것은 형식화 되고 고정화 되어진 선 풍토에 있었다. 당시 사상적인 면에서도 할안종사割眼宗師, 체발외도剃髮外道, 목조사배默照邪輩들이 들끓어 적멸목조寂滅默照에 머물거나 깨달음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도외시하고 공안을 지적知的 분석으로 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지禪智도 없으면서 방棒, 할喝 등을 남용함으로써 그 실천적인 선사상禪思想을 형식화하고 고정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대혜스님에게 있어 간화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선적인 모순들을 타파할 수 있는 도구였다. 범부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망념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중생들에게 인위적인 의단을 발동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였던 것이었다.

대혜스님이 민궐 땅에 갔을 때 수행자들이 『벽암록碧巖錄』에만 매달려 책 속의 연구를 외는 것만으로 공부할 삼는 폐단을 보고 『벽암록碧巖錄』 판을 쪼개어 불살라 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하거니와, 대혜스님은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공부인의 바른 자세로 참구하도록 하는 데는 조사 공안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임제臨濟의 재현再現이라고 일컫는 대혜스님이 『서장書狀』 전편을 통해서 말한 간화선看話禪, 특히 '무

無'자 화두에 관한 이론은 참선법이 지닌 여러 가지 병폐들을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처방법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定慧社**

【참고 문헌】

- 鄭性本, 『禪思想史』, 禪文化研究所, 1993
蔡植洙, 「大慧宗杲의 思想研究」, 동이논총 원용, 『看話禪』, 장경각, 1993.
장순용, 『참선의 길』, 고려원, 1997.
조계종 교육원, 『書狀』 조계종 출판사, 2003.

『大乘起信論』의 五門修行에 대하여

혜각慧覺 | 사교

1. 서론

『기신론起信論』은 크게 인연분因緣分, 입의분立義分,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등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의 인연분因緣分에서는 이 논을 짓게 된 이유를 말하였고 다음의 입의분立義分에서는 이 논論의 대의大義인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를 구체적으로 논술한 것이며 세 번째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에서는 사신四信과 더불어 그 실천방법인 오문五門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에서는 이 논論을 공부함으로서 얻는 이익을 설하여 사람들이 그 대로 수습修習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기신론起信論』을 해동海東의 보살菩薩인 원효元曉스님께서도 보시고 대단한 감동을 받은 나머지 소疏와 별기別記를 지었다. 그 소疏에서는 ‘오로지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신심信心을 내게 하기 위하여 소疎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다.

불교佛敎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解脫이다. 이러한 목표는 신심信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효元曉스님의 말씀대로 신심信心을 내기 위해서는 신심信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신론起信論의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에 나타난 오문수행五門修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를 하고자 한다.

2. 본론

『기신론起信論』에서는 수행修行하는 데에 다섯 가지 방편문方便門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수행신심분修

行信心分의 서두에 네 가지 믿음(근본을 믿는 것, 부처에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 사문이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아타自利利他할 것을 믿는 것)을 성취하는 실천방법이다.

다섯 가지 방편문이란, 첫째 보시문布施門이고, 둘째 지계문持戒門이며, 셋째는 인욕문忍辱門이고 넷째는 정진문精進門이고, 다섯째는 지관문止觀門이다. 이에 원효元曉 스님께서는 소疏에서 ‘믿음은 있으나 수행修行이 없으면 곧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방편方便을 닦아서 네 가지 믿음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다섯 가지 방편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1) 보시문布施門

보시布施를 번역하면 베푸는 뜻이다. 보시布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보시財布施이고 둘째는 무외시無畏施이고 셋째는 법보시法布施이다. 논論에서는 ‘일체의 중생이 찾아와서 구하여 찾는 사람을 보거든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베풀어주고 자신의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으며, 무외시無畏施는 ‘액운을 당하여 공포심과 위태로움과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거든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도와서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보시法布施에는 ‘어떤 중생이 찾아와서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자기가 아는 대로 방편을 설하되 명예나 이익과 공경을 탐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육바라밀六波羅密 가운데에 보시布施를 가장 으뜸으로 두는 것이다.

2) 지계문持戒門

지계持戒에 대한 뜻을 논論에서는 ‘가지 죄(살생, 도적질, 음행, 이간하는 말, 악구, 거짓말, 탐질, 기사, 침곡, 진에, 사건)를 범하지 말고 사된 견해와 아침을 멀리하고 항상 고요한 곳에 거처하면서 욕심을 작게 하고 만족할 줄 알며 두타행頭陀行 등을 행하라고 하셨으며 비록 작은 죄라도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부끄러워하고 이미 지은 악업은 고치고 후회하며 여래께서 만든 계율戒律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못중생들이 잘못된 허물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계戒란 오계五戒, 십계十戒, 보살계菩薩戒 등의 여러 가지 계율戒律을 말한다.

오늘 같은 현대사회에 우리의 계율정신이 흐트러져 버린 시점에 계율의 참된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3) 인욕문忍辱門

인욕忍辱에 대한 자세를 논論에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괴롭히더라도 참고 보복할 마음을 내지 않으며 또한 이익과 손해와 비난과 명예와 칭찬과 꾸지람과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산西山스님은 선가귀감仙家龜鑑에서 ‘일념진심기一念真心起하면 백만장개百萬障開하고 약무인행若無忍行하면 만행불성萬行不成’이라고 하셨다.

이 말은 ‘한 생각으로 진심을 일으키면 온갖 장애가 열리고 만약 인욕행이 없으면 온갖 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대의 선지식 구산九山스님도 ‘삼세여래三世如來나 역대조사歷代祖師도 다 인욕人慾을 성취成就하여 부처도 되고 조사도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4) 정진문精進門

정진精進을 논論에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굳세고 강하게 하여 용맹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밤낮으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성심으로 참회하고 권청하여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따라 기뻐하고 버리고 회향하여 항상 쉬거나 폐하지

않으면 모든 장애를 면하고 선근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에 끝없이 노력함을 정진精進이라 말한다. 우리 중생衆生들은 전생前生에 지은 업業에 의해 살아간다. 이런 업業을 정진精進의 힘으로 조복 받아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보살도菩薩道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5) 지관문止觀門

논論에서는 ‘지止일체경계상一切境界相을 지止라고 하며 이는 사마타관奢摩他觀을 수순隨順한 뜻으로 선정禪定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인연생멸상因緣生滅相을 분별하는 것을 관觀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파사나觀을 수순隨順한 뜻으로 지혜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止는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뜻을 자르게 하되 일체 모든 상념을 생각 생각마다 없애고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하며, 만약에 생각이 흩어지면 곧 거두어 와서 정념正念에 머물게 해야 오직 마음이 정념正念이요, 바깥 경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觀이라고 하는 것은 지止만을 오래 닦으면 곧 마음이 가라앉거나 게으르게 되니 이러므로 관觀을 닦는 것이다. 관觀을 닦는 것은 모든 세간의 유위법有爲法이 오래 머무름이 없이 무상無常함을 느끼고 알아서 마음으로 시방의 모든 일체를 분별을 떠나게 함으로써 모든 선한 공덕을 닦아서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제도할 것을 서원誓願한 뒤 오직 지止에 전념하는 외에는 나머지 일체에서 행해도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看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지관止觀은 쌍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관계이다.

다시 논論에서는 ‘행주좌와行住坐臥에 어느 때든지 지관止觀을 함께 행해야 된다고 한다. 지관止觀은 함께 같이 조성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지관止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보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수식관數息觀, 사념처관四念處觀 또는 염불念佛, 주력呪力, 참선參禪 등을 통하여 선정禪定을 이루어서 밖으로 혈

떡이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쉬어서 지조를 이루고
그 때 觀觀을 통해서 번뇌가 본래 공손하여 취하고 버
릴 것이 없음을 깨달아 근본을 비추는 觀觀이 무르익
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일체一切의 경계境界
가 동요하지 않게 됨으로 止觀이 성취되는 것이
다.

3.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문五門은 사신四信을
성취시키거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문五門을 통한 바른 신심信心이
곧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인 것이다.

참된 수행修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로지 부처
님께서 성도成道하신 후 몸소 행하신 그대로 믿고 따
라 행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기의 소견小見이 수행修行의 장애물
이다. 그리고 오문五門에 나타난 다섯 가지 방편은 서
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것임
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믿음이 부족한 오늘날의 우리 중생들에게 『기신론
起信論』에 나타난 오문수행五門修行이야말로 바로 이
해하고 실천해야만 될 것이며 그 결과 네 가지의 바른
신심이 생겨 결국에는 자신의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아타自利利他가 성취될 것이다. 『화엄경』에 말씀
하시기를 믿음은 도 道의 근원이며 공덕功德의 어머
니이다 라고 했다. 定慧社

【참고 문헌】

- 月雲, 『대승기신론』, 佛泉出版社.
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일지사.
愍山, 『대승기신론』, 世界社.
杲山, 『대승기신론』, 寶蓮閣.
九山, 『칠바라밀』, 佛日出版社.
『불교학대사전』, 弘法院.
西山, 『선가귀감』, 弘法院.

기본적인 口訣의 意味와 用度

능인能忍 | 대교

송광사는 강원교재로 사교반부터 漢藏本으로 된 無吐本 교재를 보고 있다. 우리말 'ㅈ' 가 없는 관계로 탄허스님 懸吐本을 참고로 '토' 를 옮겨 적고는 따라가며 해석을 하고 있다. 현대 '토' 를 옮길 때마다 막무가내로 따라 적는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손수 '토' 를 달아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토' 를 다는 법을 공부해 보았다.

그런데 '토' 를 달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토' 들의 意味와 用度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 우선 강원교재에 쓰이는 옛 '토' 들의 의미들과 용도부터 정리함으로 해서 解釋시 현토한 이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현시대에 알맞은 감각의 토를 달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토' 를 다는 법을 '口訣法' 이라고 하는데 漢文章의 句讀에다가, 우리말의 'ㅈ' 와 語尾가 되는 것을 붙여서, 그 한문문장의 句節의 語節이나 狀態나, 혹은 連結關係를 표시하는 법을 말한다.

한문에는 '虛辭' 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말의 '토' 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허사' 가 있는 상태에서 '토' 를 다는 것은 중복해서 말하는 것과 같으나, 중국의 古文을 우리말에 맞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文章修辭의 技巧와 含蓄味를 맛보기 위한 '音讀' 과 意味의 混同을 해결하기 위한 '訓讀' 모두를 구비하여야겠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토' 는 비록 우리말이지만 본체는 漢文이므로, '토' 를 달기 위해서는 먼저 漢文章을 파악한 후에 그것에 알맞은 우리말의 '토' 를 붙여야 한다.

1. 주어를 따르는 토

① 主格吐

'이, 가, 은, 는' ('토' 뒷자가 받침이 있으면 '은', 받침이 없으면 '는'), 주어절일 때 - '호미' (동사어미 '하다' 와 주격 '이' 가 합성된 '흠이' 가 연음된 것이다.

② 選言吐

'은, 는' ('은, 는' 은 주격과 선언토로 쓰인다.), 엔, 에는과 같이 'ㄴ' 이 이곳저곳에 붙어 이루어진다.

③ 所有格 - '의'

④ 竝列吐 - '과, 와'

2. 목적어에서의 토

한문문장의 순서는 우리와 달리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 이므로 定置形으로 되었을 때는 목적어, 보어에 '토' 를 달수가 없으나 倒置形일때는 우리말의 순서와 같게 되므로 '토' 를 달수가 있다. '을, 를'

3. 보어에서의 토

'에, 에서, 께'

4. 서술어에서의 토

서술토에는 명사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로서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명사로 서술하는 경우는 '이-' 를 사용하여 抽象적인 이치를 나타내는 토가 되고 동사로서 서술하는 경우는 '하-' 를 사용하여 行事적인 토가 된다. 따라서 명사서술의 토는 '이오, 이며, 이니, 이려니, 이라, 이나, 이라야' 등이 되고 동사서술의 토는 '하고, 하며, 하니, 허더니, 하야, 하나, 하여야' 등이 있다.

① 順接(緣由 - 下句가 上句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준다.) - '할새, 일새, 로, 하야, 코, 하사와, 하시고'

② 逆接(역접은 언제나 上句에 대해서 下句는 부정

적이므로 上句는 抑制하고 下句는 闡揚하는 抑揚刑의 句法으로 되어있다.) - '나, 어니와, 이어니와, 언마는, 이언정, 론, 로대, 하사대, 이온, 라가, 하나'

③ 竝列 - '하고, 하시고, 하옵고, 이오, 하며, 코, 이며'

④ 強調 - '도, 사, 어늘, 라도, 라사, 어니, 토록, 하야사'

⑤ 假定 - '면, 하면, 인댄, 어든, 라도, 이온'

⑥ 反語 - '어니, 커니, 하시니, 컨댄, 커든, 로소이다, 인들'

⑦ 因果關係 - '일새니라, 이니, 하니, 로다, 한대'

⑧ 時制 - '러니, 하니, 하시니, 라가, 니, 하더니, 더니'

⑨ 副詞語 - '하야는, 로, 히'

5. 終結語尾

① 呼格 - '아' (平稱형), '하' (尊稱형)

② 疑問 - '오, 고, 아, 가, 리오, 니잇고, 이룬지'

③ 感歎 - '아, 여, 라, 따녀, 인저'

④ 敘述 - '이니라, 이리라' (결과서술)

⑤ 命令 - '케하라' (사역명령)

⑥ '하소서' (請願), '한' (過去冠形形), '호려하야' (強調的意慾)

6. 複合吐

한문은 거의가 복합토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하며'를 분석해 보면 서술어 동사의 행동상태를 이어받는 '하'와 아랫구의 연결이 병렬로 되었을 때 병렬을 표시하기 위한 '며'가 합해져서 '하며'를 이룬 것이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토가 복합토로 이루어졌다.

7. 默吐

긴 문장의 기능과 중심된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小句節上的 토가 생략이 되는 수가 많다. 이것을 '默吐'라고 부른다. 따라서 '묵토'는 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생략된 것이다. 定慧社

가		疑問, 感歎	사		強調	이언정		選擇, 假定	하며		竝列, 順接
고		疑問終結		이, 가	主客助詞	이오(오)		竝列	하면		假定
나		逆接	아		呼格, 疑問, 感歎	이온	하거든	假定, 仰揚	하사대	하시되	로대의 尊稱
니		過去, 結束, 反語	어늘		仰揚, 逆接	인댄	할진댄	假定	하사와		하야의 尊稱
니잇고		疑問(尊稱)	어니	하거니	強調, 反語	인들		反語	하소서	하십시오	請願(尊稱)
도		假定, 強調	어니와		仰揚, 逆接	인저	인가보다	感歎	하시고		竝列, 順接(尊稱)
따녀	것이겠는가	感歎	어든		仰揚, 假定	일새니라	이때문이다	緣由, 敘述	하시니		過去, 反語, 連用
라		緣由, 終結	언마는		限定, 仰揚	커니(어니)	하거니	強調, 反語	하야	해서	順接, 緣由
라가	하다가	仰揚(時制)	에, 애	에	處格	커든(어든)	하거든	仰揚, 假定	하야는		強調的選言
라도		假定, 強調	엔	에는	處格 + 選言	컨댄(건댄)	하건대는	假定	하야(하야사)	하야야	強調
라사	라야	強調	여		感歎, 詠嘆	케하라	하게하라	使役, + 命令	하옵고		하고의 極尊稱
러니		結束, 過去, 仰揚	오		疑問, 抽象, 竝列	코	하고	順接, 竝列	한		過去冠形形
로		緣由, 使役	와, 과		竝列	토록	하도록	強調	한대	하니까	過去, 仰揚
로다		詠嘆敘述	은, 는		主客選言	하		尊稱呼格	할제	하기에	緣由
로대(호대)		仰揚, 逆接	을, 를		目的格	하고		竝列, 順接	함을		動詞語尾 + 目的格
로소이다	합니다	告知	의		所有格	하나		逆接	호려하야	하려고해서	強調的意慾
론	하느니보다는	比較選擇	이니라		敘述終結	하느니	하느니	過去	호미	함이	動詞語尾 + 主格
리오		疑問	이러라(러니라)	하더라	結果敘述	하느니(호느니)		過去, 結束, 連接	히	하기까지	終着
며		竝立	이룬지	이었는데	疑問	하더니(더니)		過去 + 結果			
면		假定, 未來	이어니와		逆接, 仰揚	하리니	하겠으니	推測, 自意(連用)			

【참고문헌】 趙鐘業 著, 『漢文通釋』, 螢雪出版社.

명주재장明珠在掌

무량無量 | 대교

지난 봄 새하얗게 송광사를 수놓은 벚꽃터널을 지나 도반 냇에서 오대보궁 참배를 떠났다. 출가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보궁을 참배해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뜻밖에 10여 일의 휴가로 그간 별려왔던 거사를 실행해 옮겼다.

아마 작년인가. 도반스님 한 명이 하안거를 마치고 방학을 이용해 송광사에서 설악산 봉정암까지 도보로 오대보궁을 참배한 일이 생각난다. 우리는 그 도반의 신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강원을 마치기 전에 뜻 깊은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출발을 했다. 송광사에서 출발해서 통도사, 범홍사, 정암사, 상원사 중대, 봉정암 순으로 일정을 세우고 가는 틈틈이 주변의 좋은 사찰과 큰스님도 친견하기로 하고 만행길에 올랐다.

먼저 통도사에 가기 전에 부산 범어사에 들러서 무비스님을 뵈었다. 당시 공부 중이었던 금강경(우리에게 빨간 금강경은 아마 가장 친근한 주석서(??)가 아닌가 한다)을 주석하신 스님을 뵈는다는 설레임에 약간의 흥분을 가지고 원주실을 지나 영화실에 찾아가니 무비스님께서 의자에 앉으신 채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스님을 처음 뵈는 자리라 감회가 남다른 시간이었는데 불편하신 몸으로도 우리를 자상하게 맞아 주셨다. 몸이 불편하시다고 지금까지 쌓아 오신 법력까지 불편하신 건 아니었다.

초학자인 우리들의 질문에 아주 자상하게 답을 해주시고 특히 daum에서 운영하시는 cafe인 영화실



을 만들어 많은 스님과 재가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고, 당신께서 올려놓으신 법문을 다른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적

극적인 사용까지 당부하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되었다. 마지막으로 만행 잘하라며 여비까지 챙겨주시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임제록 해석서 까지 주셔서 또 다른 법을 전해 받은 기분이었다.

범어사를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

해운대 바다가 바라보이는 해운정사에 계신 진제큰 스님을 찾아뵈었다. 아직 학인인 우리에게는 말로만 듣던 이 시대의 도인이라는 큰스님을 뵈는다는 설레임에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할세라 한달음에 해운대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 때나 큰스님을 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사시 공양 후 한시간 정도만 친견이 허락되는지라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해운정사를 둘러보고 사시공양 후에 순서를 기다려 잠깐 친견할 수 있었다. 초학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발 전에 하신 강사스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왜 큰스님을 찾아뵈어야 하는가. 수십 년을 수행자로 살아오신 큰스님들은 멀리서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신심이 나게 한다. 마치 마승비구의 위의를 보고 사라불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였듯이 수십 년간 수행하신 모습에 우리 초학자들은 수행자로서의 미래를 찾

아야 보아야 할 것이다.’

해운정사를 뒤로하고 불보종찰인 통도사로 향했다. 통도사는 출가 전부터 몇 번 와보았으나 예불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않은 터라 새로운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섰다. 원주실에 들어서 방에 걸망을 내려놓고 잠깐의 휴식 후 산내 암자를 둘러보기로 했다. 통도사에는 많은 산내 암자가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많이는 둘러보지 못하고 몇몇의 암자만 둘러보기로 했다. 특히 반야사의 아름다움에 도반들 모두가 감탄했고 송광사 암자와의 또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끼면서 발걸음을 큰절로 향했다.

어느새 저녁 공양시간이 되어 공양을 마치고 저녁 예불을 모시러 큰법당으로 향했다. 불보종찰에서의 저녁 예불은 처음 출가한 그때처럼 또 한번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저녁예불 후 강원 도반스님과 차 한 잔을 마시고 도반스님의 배려로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새벽 예불과 공양을 마치고 포행삼아 가까운 통도사 율원이 있다는 취운암에 들렀다가 박물관을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송광사 강원의 전 강주이셨고 현재 동화사 강주이신 지운스님을 뵈러 동화사로 갔다. 예전 강주스님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새 동화사에 들어섰으나 이 일을 어찌하랴!!! 우리가 만행에 나설 수 있게 된 이유인 비구계 수계산림 교수사로 송광사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동화사를 뒤로하고 해인사로 향했다. 경상도로 성지 순례를 간다면 삼보사찰은 꼭 가 봐야 된다는 강사스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인사로 안내했다. 해인사에는 사제스님이 있는지라 안내를 부탁하기로 하고 전화를 해서 마중을 나오라고 했다. 사형과 사형의 도반들이 멀리 송광사에서 왔으니 대접에 소홀하면 후환이 있을 거라는 약간의 엄포도 빠뜨리지 않고, 범보종찰인 해인사 역시 출가 전에 자주 들렀던 곳이다. 예불에는 한번도 참석을 해보지 않았기에 기대가 되는 곳이다. 특히 해인사와 송광사는 많은 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비교가 되곤

하기에 해인사 예불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늦은 오후라 약간의 휴식 후 저녁 공양을 하고 저녁 예불을 모시러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범고와 범종소리를 들으며 송광사의 사물소리와 비교하며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대적광전에 들어서니 벌써 대중스님들이 모두 모여서 엄숙하게 은은한 범종소리에 깊은 명상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물이 끝나고 저녁예불이 시작되자 우리 네 명 도반의 입에는 똑같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해인사의 힘찬 예불소리는 송광사 학인인 우리들을 압도할 만 했다. 힘찬 예불은 송광사의 장엄하고 웅장한 그것과 비교가 되어 우리 모두가 그냥 미소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 미소의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모르지 않으리라...??!! ㅎㅎㅎ

저녁 예불을 모시고 사제스님의 안내로 종정이신 방장스님을 뵈려고 했으나 출타 중이신 관계로 뵈지 못하고 강원 강주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에게 손님이 오시는 관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방에 계시던 예전 치문반 때 강의를 해주신 강사스님과 오랜만에 사제의 만남을 가졌다. 윗반이었던 스님도 함께 자리를 하였고, 2년이 조금 지난 시간이지만 많은 것에서 공감을 하며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어느덧 10시가 되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 예불도 마찬가지로 송광사 예불과 많이 비교를 하면서 예불을 마치고 천수경 독경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와~~ 장난이 아니다. 송광사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이다. 특히 목탁을 치고 있는 소임자가 아주 대단해 보였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방에서 도반들과 장엄하고 웅장한 송광사 예불과 해인사의 힘차고 기백이 넘쳐흐르는 것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문득 사제스님의 말이 생각이 났다.

방학을 해서 송광사에 한번 오면 예불시간에 가슴이 답답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익혀진 습에 의해 다른 상황과 마주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나 보다. 우리는 지

금 송광사 예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제스님은 아마도 방학 때 송광사에서 예불을 모시며 해인사를 생각 했으리라. 아침 공양을 마치고 바로 사제스님의 안내로 백련암과 지족암을 둘러보고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났다.

충주의 석종사는 일행인 도반스님의 은사이신 혜국스님이 계신 곳으로 방학 만행 중 인사를 드리러 찾아 뵈었다. 그날은 오후에 금강정사에서 신도들이 혜국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석종사에 온다는 이야기에 만행 중 좋은 법문을 기대하며 법당에 앉아서 있었다. 예전 수행하시던 이야기며 확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려 주셨는데 특히 해인사에서 성철 큰스님께 혼이 났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젊은 시절, 선방에서 공부하시다가 공부에 너무도 진전이 없어 도반스님들과 산위의 마애불에게라도 올라가서 통곡을 하자는 제의에 그러자며 산에 올라 대성통곡을 하고는 내려오는데, 스님들은 성철스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고 옷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도반들이랑 밑천을 다 내놓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발견하신 큰스님께서는 연유를 묻고는 듣자마자, “이놈들아! 앓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산에 올라가서 울기는 왜 울어 이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시며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하라는 불호령에 젊은 중들이 법당에서 밑천 다 내놓고 절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에 모인 대중들은 한바탕 크게 법당이 떠나갈 듯 웃어 버렸다.’

석종사에서 하룻밤을 머문 후 사자산 범홍사로 향했다. 범홍사는 고 1때 직지사학생회 수련회로 기본적이 있어 17년 만에 가는 곳이라 감회가 새로웠다. 그런데 가끔씩 들은 이야기로는 불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는 주위의 말에 약간의 걱정이 앞섰으나 즐거운 마음으로 범홍사에 도착을 했다. 역시나 예전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부처님은 그대로 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랴.

보궁에 올라 2시간 여의 참배를 마치고 불사중이라

숙소가 없다는 주지스님의 말에 우리는 태백산 정암사로 향했다. 정암사는 자그마한 절의 규모에 오대보궁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의 멋을 간직한 아늑한 절이었다. 시설은 열악한 편이었으나, 이름은 모르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신 스님과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신 후원의 보살님이 너무나 고마웠다. 자그마한 법당에서 작은 수의 대중이 저녁예불을 모시고 각자 나름대로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다.

이른 새벽 눈을 비비며 새벽 예불에 들어가니 비구니 스님이 순치황제 출가시로 새벽종송을 하고 있었다. 순치황제 출가시는 내가 행자시절 공양간에서 쌀을 씻고 조리질을 하며 즐겨 부르던 곡조인데 여기에서 다시 들으니 예전 행자시절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봄이지만 추운날씨로 모자를 쓰고 계신 비구니 스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침을 먹고 새벽의 햇살을 받으며 잠깐 동안 주변을 둘러보고 서둘러 오대산으로 향했다. 정암사는 개인적으로 가장 편안한 느낌을 받은 곳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도라도 한 번 해보고 싶은...

상원사는 지난 겨울 은사스님께서 겨울 안거 정진을 하시던 곳이라 선방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곳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만 하고 상원사 보궁인 중대에 올라갔다. 중대에 하룻밤 머물며 기도를 하려고 했으나 중대암이 불사 중인 관계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원사로 가보았다. 상원사를 둘러보고 나서 선방 앞으로 가니 학인이라 조금 낯설고 어색해서 선방 앞을 서성이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들어오라고 어디서 왔냐고??

“송광사 학인인데 보궁순례 중 은사스님께서 지난 겨울 정진하던 곳이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 지대방에 데리고 들어와서 맛난 것도 주시고, 차도 마시고, 갈 때는 많이 가져가라고 하는 스님이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다.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신 진성(??) 스님 감사합니다.

상원사에서 내려와서 월정사를 둘러보고 마지막 목적지인 설악산으로 향했다.

이번 만행의 최대의 난코스인 설악산 봉정암. 백담사에서 걸어서 5시간이라는 말에 모두들 걱정이 앞섰다. 긴 여행에 피로가 쌓인지라 5시간의 등산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도반스님은 송광사에서 설악산까지 걸어서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서 설악산 산행을 시작 했다. 봉정암 가는 중간에 있는 오세암에 들어서 잠시 쉬기로 하고 출발을 했다. 2시간 30분 여의 산행에 오세암에 도착했다.

이 산 속에 어떻게 불사를 하신건지 깔끔한 건물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얼마 전 보았던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법당을 참배하고 봉정암으로 향했다. 3~4개의 고개를 넘어서 2시간 여의 산행 끝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봉정암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개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도반스님 하나가 투덜거렸다. 평소 포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한 도반이다. “왜 자장스님은 이 높은 곳에 절을 세워서 중생들을 이 고생을 시키시나!!!” 고개를 하나씩 넘을 때 마다 투덜대던 도반에게 ‘올라가보면 달라질게다. 뭔가 큰 뜻이 있으시기에 이 산 속에 절을 지으신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로 무사히 모두 봉정암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 봉정암에 도착해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왜 이 높은 곳에 절이 있는지 와 본 사람은 다 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 직접 한번 가보시길...

저녁공양 직전에 도착을 하여서 방에 짐을 내리고 바로 저녁공양을 하고 저녁예불에 참석을 했다. 어디서 오셨는지 많은 불자님들이 법당을 짝 메우고 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보다 젊은 불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예불 후 바로 철야기도로 이어졌다. 모두들 5시간의 산행으로 여기에 왔을 텐데 어떻게 철야기도까지... 부끄러워 말을 할 수가 없다.

재가불자도 수행에 저토록 지극정성인데 출가 수행자인 우리가 어찌... 다음날 새벽 예불을 모시고 아침공양 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보궁 순례는 끝이 났으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설악산 정상틀 가 보아야지 다음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일정이 촉박하다. 바로 복귀해서 강원 생활 준비를 해

야 하니 하루를 더 머무를 수 없다.

짧은 회의 끝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오르는 길에 들린 영시암에 계신 노스님을 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하산을 했다. 백담사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영시암은 지금 계시는 도운 노장스님께서 몇 해 전에 복원하신 절이라 한다. 오르는 길에 잠시 들러 참배를 마치고 가려는데 노스님을 뵈었다. 지금은 보궁 순례중이라 봉정암에 들렀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라온 곳이라 마지막 회향처로 선택이 되었다.

내려오면서는 오를 때 힘들어 보지 못한 기암괴석과 멋진 폭포에 경탄을 금치 못하여 즐거운 하행 길에 어느새 영시암에 도착을 했다. 법의를 수하고 노장스님께 예를 갖추는 뒤 즐거운 옛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 채 한참을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려는데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셨다. 거기에는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해놓으신 듯 “明珠在掌”이라고 쓰여진 글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다.

명주재장이라...

노스님은 밝게 빛나는 여의주가 이미 내 손안에 있다고 해석해 주시며 우리 일체 중생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고 내 안에 이미 그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야기를 경전에서 본 기억이 있다. 명주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명주를 찾으러 길을 떠나고 마지막에 자신의 손에서 명주를 찾게 되었다고...

어쩌면 우리가 만행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행을 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구절이 아닌가 한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앓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무엇을 찾아 그리 멀리 떠나갔던가.

지금은 만행을 마치고 본래 자리인 강원 학인으로 돌아왔다. 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영시암 노스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깊이 품고서 출가사문으로서의 길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이번 10여 일의 만행에 같이 고생한 도반들과 도움을 준 많은 인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定慧社**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실



2월 22일 제16회 강원졸업식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대중스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들이 풀잎의 이슬처럼 아득히 떨어져 갑니다. 선배스님들의 졸업 진심으로 추카추카 드립니다.



3월 29일 소방훈련

실제상황과 같이 송광사의 문화재는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학인스님들의 열의로 가득합니다. 화재방심하지 맙시다.

예방이 최고야!



4월 19일~25일 비구계 수계산림

사미에서 비구스님으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언제나 초발심의 마음으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5월 4일~5일 삼월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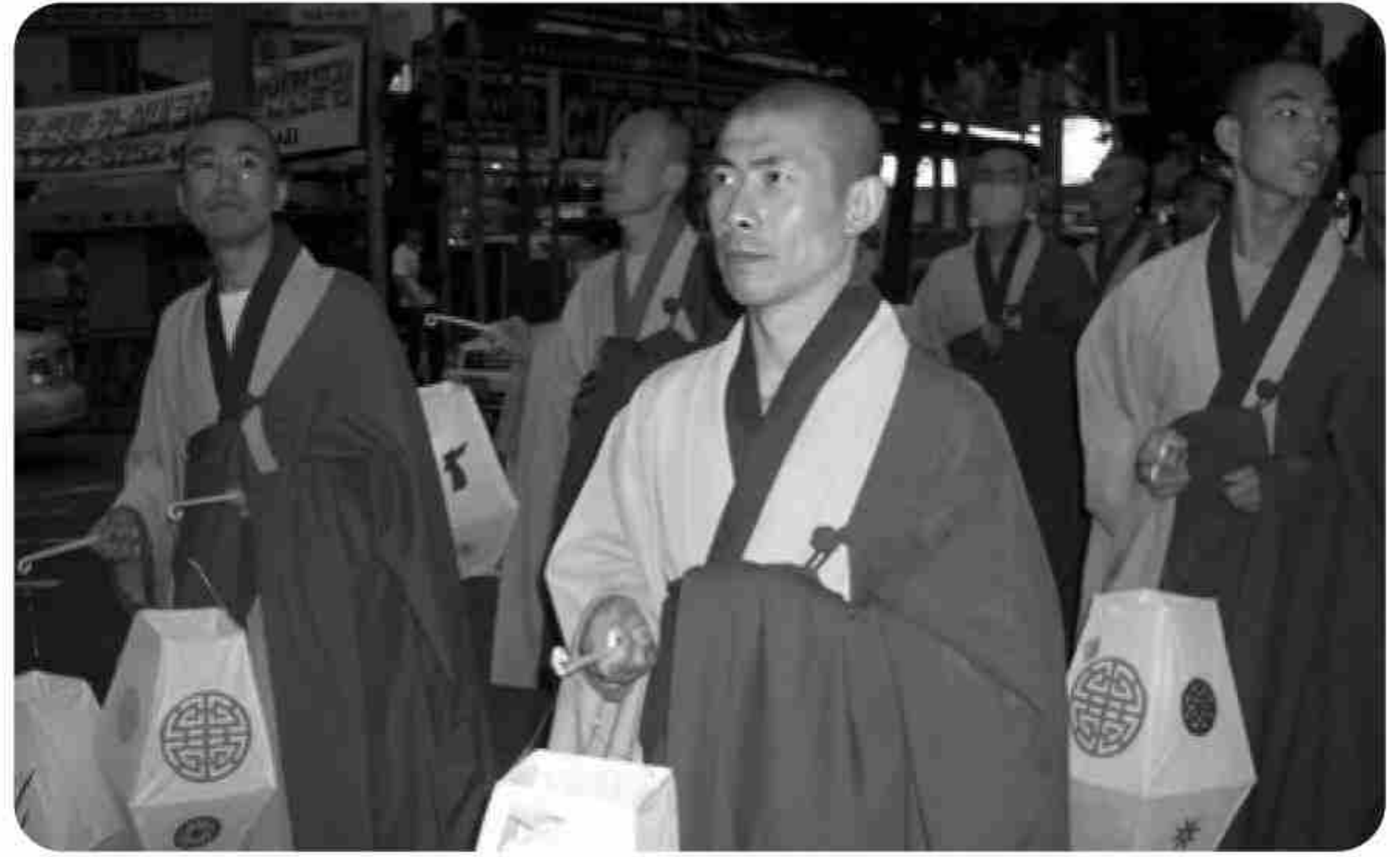
불일보조국사 종재, 보살계 수계산림, 율맥전수 등의 삼월불사! 출가, 재가신도 모두 하나가 되어 원만히 회향합시다. 삼월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이 인연공덕으로 무명업장 녹여내고 꼬옥 성불합시다.



5월 8일 빛고을 연등축제

전남 광주지역 4본사협의회 주최 '빛고을 연등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인스님 하나하나의 등불처럼 광주전역에 빛을 발하여 간절한 불국토를 기원했습니다.

광주에도 부처님이 나투셨네!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存'
자비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닮고 싶어라.



5월 27일 축구 윤력

녹음이 짙은 싱그러운 봄 날씨에 축구 윤력 하기에 좋구나! 승부를 떠나서 화합된 모습을 보여 준 대중스님들 아자~화이팅!





6월 1일 발운력

무더운 여름안거! 시원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받치기 운력하고 있습니다. 해태懈怠하지 않는 불퇴전의 마음으로 수행에 매진하겠습니다.



6월 14일 일각스님 9주기 추모법회

큰스님의 가르침이 조계산 자락에 범음으로 가득합니다. 지금의 후학들은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6월 25일 감자 운력

전 대중이 함께하는 감자캐기 운력입니다. 행여 상처낼까봐 조심조심!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도 마음은 뿌듯하답니다.



7월 8일 반결제 원족산행

감로탑에서 마주보이는 모후산 산행! 땀으로 범벅이 되어 힘들어 보이지만 정상에 오르니 모든 번뇌가 끊어지듯 맑고 청량한 바람이 뼈속까지 사무칩니다. 유마사에서 공양하고 심청이가 공양미를 시주했다는 관음사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꾸밈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능인스님 061)755-5302

강의(특강) 테이프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이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세트 테이프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50,000원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 | 25,000원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해거스님 · 도덕경 16개 | 23,000원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지장 ☎061)755-5302(전화주문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1676-01-001557 송광사 지장

테이프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광주 무각사·증심사·서울 심곡암·서울 길상사·화순 운주사·유마사·울산 문수사·송광사 강원동문회·송광사 울주 스님·유나스님·율원장스님·총무스님·양산 통도사·강원도 낙산사·선원스님·송광사 강원후원회·박정란님·이정애님·윤다희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약사암 자비원·광주 보운사·광주 정안사·김제 금산사·광주 신평사·부산 관음사·부산 선다심님·광주 청강님·김재규님·인천 무진행님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송광사 주지스님·율원장 스님·성륜사 주지스님·증심사 주지스님·선원 진경스님·원주 일화스님·관음전 도현스님·증심사 신도일동·곽미숙님·김갑숙님·정성태님·김현정님·강병균님·양숙현님·박동운님·정영희님·한동화님·연지향님·환희성님

「정혜사」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 출판물로써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송광사 강원과 인연을 함께하며 여러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호평과 격려, 그리고 질타와 충고 속에서 출판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9호의 발간과 함께 내부 사정상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는 앞으로의 발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 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몹시도 답답하던 조계산의 여름날씨도 「정혜사」誌를 압박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비교할 바 아니었다. 소식지의 존립을 둘러싼 여러 설왕설래들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낙관적으로 회자되곤 했지만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혜사」誌는 간행되었다. 이 한 고비 넘음이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어 영원히 함께 하는 강원 소식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1호 「정혜사」 발간을 위해 원고에 응해주신 강사스님, 대중스님 그리고 묵묵히 수순해준 편집위원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침표를 찍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강원 학인스님들의 때문지 않은 진솔한 초발심의 마음을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는 순수함을 이어가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을유년 하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옛사람古人이 말씀하셨지요.

“주인공이여,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길을 찾았는데
그대는 왜 고통의 바다 속에서 한없이 떠도는가.”

안거의 결제니 해제니 따질 것 없어요. 출가할 때 다짐했던 처음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처음 뜻이 얼마나 소중한니까.

처음 뜻을 시시각각 잃지 않고 맨 마지막 요달할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부처님 은혜를 충분히 갚았다고 할 것입니다.

關化羽



하늘이 물에 잇듯 銀漢이 옮겨가고
玉流에 이는 바람 仙衣를 식그우나
면 하늘 떨구는 구름 그림자라 아쉬워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우화청풍羽化淸風 송광사 내팔경內八景의 하나.